

석사학위논문

플 하우스

- Full House Stephanie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강인희

2005년

석사학위논문

풀 하우스

- Full House Stephanie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강인희

2005년 7월

# Full House Stephanie

지도교수 김 재 원

강 인 희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7월

강인희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5년 7월

# FULL HOUSE

Stephanie

In-hee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Jae-weon Kim)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uly 2005

## 목차

### ABSTRACT

제1장.....	1
제2장.....	8
제3장.....	15
제4장.....	23
제5장.....	28
제6장.....	37
제7장.....	45
제8장.....	49
제9장.....	54
제10장.....	64
제11장.....	68
참고문헌.....	72



## Abstract

This book, *FULL HOUSE Stephanie*, is about a sixth grade student named Stephanie. The compelling story is about the sixth graders' carnivals and cousins. Stephanie's sixth grade year is turning out to be the most confusing time of her life. One day aunt Becky gave Stephanie the first baby-sitting job, taking care of her twin cousins. At the same time, however, Stephanie is in charge of planning the sixth graders' carnival. It means that she has got two big problems. After much thought, she came up with a plan to handle the situation. Without letting Becky know, she took the twins to her school to take part in the committee meeting as a chairperson, but she almost loses one of the twins, Alex. Becky, however, already knew that Stephanie took them to the committee meeting through the busy city. When she got home she didn't say anything about what she did. Becky and her husband Jesse got really angry and the whole family was disappointed by Stephanie's behavior. Moreover, students on her committee were not that cooperative in preparing the carnival. Most of all, the three girls heartily wanted to defeat the eighth graders, especially her rival Jenni in library fund raising. Her rival, Jenni is the eighth grade chairperson and has the great idea of taking a picture with movie star Dara Dean. Under the circumstance Stephanie did her best with her best friends Darcy Powell and Allie Taylor running a childcare program during the adult auction. Finally on the carnival day, Stephanie did a very good job of caring for babies on the playground. Although Jenni won, Stephanie learned various lesson preparing for the carnival. Thanks to her successful handling of the carnival, she could regain the respect again of all her family members, and Stephanie realized how important it is to be honest!

## CHAPTER

### 1

“니네 내가 누구를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 하는지 아니?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물었다.

다씨 포울과 엘리 테일러는 재빠르게 대답했다. “그야 조쉬 힐맨이지”

“스테파니, 너 그 사람 얘기 수 백 번도 더 했어.” “그것도 오늘 아침 학교에서부터 말이야.” 다씨가 덧붙였다.

스테파니는 큰 소리로 깔깔 웃어댔다. 그리고는 순간 소심한 눈길로 사서 마스씨를 어깨 너머로 힐끗 보았다.

이 세 소녀들은 4교시 자습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고 코엘 사회 선생님께 허락을 받았다. 이들은 식민지 시대의 관습에 대한 보고서들을 쓰기위해 자료를 찾아 봐야만했다. 스테파니, 다씨, 엘리는 쌓아올린 책더미로 둘러싸여 있긴 했지만 그들이 해 놓은 건 사실 그리 많지 않았다.

“조쉬는 등치가 너무 커.” “난 개가 입고 있는 찢어지고 험령한 바지가 좋더라.” 다씨가 미소를 지으며 가늘고 우아한 손으로 검은 곱슬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스테파니는 다씨가 아주 복도 많은 애라고 생각했다. 다씨가 웃을 땀휘트니 휘스턴과 꼭 닮았기 때문이다.

“브랜든 팰로우에 대해 뭐 할 말 없어?” 엘리가 스테파니에게 물었다. 엘리는 귀 뒤쪽에 길고, 웨이브 진 밝은 갈색머리카락 하나를 잡고는 싱긋 웃었다.

“8학년 남학생 중에선 개가 가장 귀엽더라.” 스테파니가 한숨을 지며 말했다.

“그리고, 새로 온 애는 어때?” 엘리가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다. “론인가 뭐가 하는 애는 조쉬랑 놀지 않니? 론 마틴즈 말이야. 나는 개한테 가까이 가서 말을 걸기가 너무 겁이 나더라. 그래도 론 마틴즈 귀엽지 않니?”

“그래.” 스테파니가 맞장구쳤다.

“그래.” 다씨도 맞장구쳤다.

한창 대화를 하던 중 순간, 스테파니는 사서가 의자를 뒤로 밀고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스테파니는 아차 싶었다. 그리고는 사서가 자기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다씨의 의자 뒤로

나타난났다.

스테파니는 다씨에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조용하라는 눈치를 보냈지만 다씨는 알아채지 못했다.

“난 칼랩 파커가 남자애들 중에서 가장 귀엽다고 생각해.” 다씨는 계속 잡담을 해댔다. “웨이브한 머리와-”

“으음.” 스테파니가 말을 더듬으면서 사서 마스너를 위로 뻗어 쳐다보았다. “어, 그래 나도 엘리 너와 같은 생각이야. 칼랩 파커는 옥수수가루와 라드 건포도 롤빵을 만들어서 식민지 시대 당시 아주 유명했지. 그럼 우리 다함께 그분처럼 유명하고 귀감이 되는 미국인 발명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다씨가 낫 나간 것 같은 스테파니를 바라보았다. “너 미쳤냐, 스테파? 칼랩 파커는 살인 미소를 가진 바로 그 애잖아-”

그때 다씨 뒤에서, 마스너가 큰 목소리를 내며 목청을 가다듬었다. 다씨는 깜짝 놀랐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엘리는 함박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용감하게 사서의 주의를 떼기로 돌리려고 애썼다.

“식민지 프로젝트에 관해서 저희에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서 선생님?” 엘 리가 물었다.

“엘리야 그건 나중에 하자. 지금 난 스테파니와 저기 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구나.”

그러면서 마스너가 돌아서자 스테파니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내가 뭘 어쨌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았다.

다씨와 엘리는 스테파니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마스너가 왜 저러시는 것 같니?”엘 리가 조용히 말했다.

스테파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뒤로 밀면서. “난들 알겠니?” 라고 투덜거렸다.

스테파니는 마스너를 따라 그의 책상이 있는 데로 갔다. 마스너가 뭔가를 말하려 하자, 스테파니는 재빠르게 “죄송해요 선생님” 하고 말했다.

“책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했어요. 쌍둥이 동생 중 한 명이 책을 가지고 가버려서...”

마스너가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집 개가 물어갔을 거예요, 짤은 모르지만.” 스테파니가 핑계를 덧붙였다.

“그래 그 책은 얼른 반납 하거라.” 마슨씨가 말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할 얘기는 말이지.” 마슨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건 말이지 우리가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모르려고 하는데...”

“자금모금이요?” 스테파니가 힘차게 되물었다.

“그럼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 었어요?”

마슨씨는 스테파니를 보며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게, 스테파니야. 너 때문은 아니야. 너도 알지 모르겠지만. 최근 모든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 도서관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도서관의 새로운 책 주문 목록을 거의 반이나 줄여할 정도니까!”

스테파니는 시무룩한 얼굴을 했다. 도서관이 책을 가져가서 반납 안 하기 일쑤이고 그러면서도 도서관 책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책을 주문하지 못한다면, 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테파니가 물었다.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란다 스테파니야.”

“저를요?”

“너희들과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는 각 학년마다 도서관 기금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내놓게 할 참이란다. 학부모님들은 같은 날 경매로 물품판매를 할 계획이야 그래서 학교 전체가 참여하게 만드는 거지.”

“그럼 저희에게 과자를 팔라는 말씀이세요?” 스테파니가 물었다.

“글쎄, 그럴 수도 있지,” 마슨씨가 말했다. “방금 너희들이 얘기했던 식민지 옥수수가루와 라드 건포도를 만들려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마슨씨가 고개를 흔들며 피식 웃었다.

“사실,” 마슨씨가 계속 말을 이어 나갔다. “여기 선생님들은 너희들이 아주 멋진 프로젝트를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단다. 물론 너희들도 재미있을 거야. 하지만 최대한 많은 돈을 모아야해. 우리는 너희들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선의의 경쟁정신을 본받았으면 한단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모은 학년은 학년 소품을 갈 수 있도록 할 거란다.”

“와우,” 스테파니가 말했다.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스테파니야,” 마슨씨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영

어 선생님과 얘기를 했단다.”

“어-오,” 스테파니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스테파니가 궁금해 했다.

마슨씨는 미소를 지었다. “번즈 선생님은 너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골든 창작 글짓기 대회에서 글짓기에서 네가 상 받은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구나. 그래서 네가 글짓기와 독서에 관심이 많으니까 6학년 도서관 프로젝트 추진회 회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것인데. 넌 어때?”

“하고 싶어요!” 스테파니가 매우 좋아하며 대답했다. 스테파니는 영어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해 주신 게 너무 기뻐다. 번즈 선생님은 스테파니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스테파니, 우린 널 믿는다,” 마슨씨가 말했다. “6학년 추진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여기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렴.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크게 생각 하라는 것!” 이란다.

“크게 생각하라,” 스테파니가 친구들에게로 달려가면서 혼잣말을 했다.

“크게 생각하라,” 책상에 앉으면서 다시 한 번 되풀이 했다.

“뭘 크게 생각하라는 거야?” 다씨가 스테파니에게 물었다.

“6학년 프로젝트,” 스테파니가 흥분하며 그걸 설명했다. “도서관 기금 마련을 위한 거야, 난 6학년 프로젝트 추진회의 회장이고, 우리는 도서관 기금 마련을 위해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야해.” 스테파니는 그 설명을 하면서 정신없이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우리가 7학년과 8학년 보다 많이 돈을 모으면 소풍을 갈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알잖아, 우리가 8학년과 언제나 라이벌 사이라는 거. 우리가 이번에 개네 들을 이기면 하면 아주 멋진 거야.”

“와우,” 다씨가 말했다. “학교 쉬는 날을 따낼 수 있게 도와주면 자동적으로 전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이 될 거야. 나도 해도 되니?”

“난?” 엘리도 신이 나서 물었다.

스테파니가 웃었다. “너희들은 이름은 이미 올려놓았어!” 스테파니가 공책을 밀면서 자기가 쓴 것을 보여주었다. “도서관 기금 추진회 회원: 스테파니, 엘리, 다씨.”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테파니가 말했다. “또 누가 우

리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찾아보는 거야.”

“칼랩 파커는 어때?” 다씨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난 개가 생각을 크게 할 거라 믿어.”

스테파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괜찮아.” 스테파니가 말했다. “그런데 회의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있고. 그때 축구팀 연습이 있잖니?”

“오,” 다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면 저기...”

“저기 너희들의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스테파니가 누가 그 말을 하는 건지 보려고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돌려서 보니, 8학년인 제니 모리스가 정면으로 스테파니를 보고 있었다. 제니는 자칭 플라밍고라고 하는 8학년 모임의 대표였다. 그 잘난 척하는 그룹의 여학생들은 매일 분홍색 옷을 입고 한 그룹임을 보이기 위해 특이한 팔찌와 매니큐어를 하고 다녔다. 멋쟁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멋 부림에 대해서만은 학교 애들이 모두 따라 할 정도였다.

스테파니는 제니를 보면서 자가의 옷차림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침에 자기가 입은 체크무늬 남방, 수놓인 데임 조끼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치마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제니의 딱 맞는 각반과 스웨터와 비교되니 스테파니의 옷은 마치 2학년들이나 입을직한 옷처럼 어설피게 보였던 것이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이 촌스러운 옷들은 미셀에게 줘버려야겠어! 스테파니는 혼잣말을 했다.

“너희 세 명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제니가 계속 자기의 긴 갈색머리를 손으로 치면서 말했다. “누가 우리 학년의 기금 마련 프로젝트 추진회 회장인지 말이야.”

스테파니가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언니,” 스테파니가 말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는 건 둘째고, 제니 언니가 말해 주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은데요.”

전교에서 스테파니, 다씨, 그리고 엘리만이 제니와 그 친구들을 못 마땅해했다. 올해 초 그들은 플라밍고 언니들이 거짓말을 잘 하고 잘난 척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제니가 말했다. 제니는 자신의 다리를

내밀며 자기의 새 구두 중 하나인 화려하고 바닥이 두꺼운 구두를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8학년 프로젝트 추진회 회장이야!”

제니는 거기서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고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렸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스테파니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보고 어찌라는 건가요?”

“신경 쓸 거 없어 스테파니.” 다씨가 끼어들었다.

“왜 제니가 우리에게 자기가 회장인 것을 일부러 알리면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지 그 말이나 계속 들어나 보자.”

“내가 일러두는데,” 제니가 애써 상냥한 태도를 보이면서 말했다. “너희들, 자잘한 회의 따위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이미 8학년위원회는 굉장한 계획을 갖고 있거든. 정말 멋진 계획이지. 우린 다른 학년 보다 적어도 10배는 더 많이 기금을 모을 거야. 학교 소풍날을 따낼 주인공은 바로 우리야!. 그러니 너희 꼬맹이들은 언니들 방해할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스테파니가 급하게 제니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아 그래요?” 스테파니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좋아요, 누가 최고의 계획을 갖게 될지 두고 보죠! 언니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하지만---

마슨씨는 이번 일에 그의 인생이 걸린 것 마냥 진지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서 있었다. 그러다가 “자, 꼬마 숙녀분들!” 하고 손뼉을 치며 말했다. “여기는 공부하는 도서관이야.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심해야지!”

“죄송해요, 선생님.” 제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진난만했다. “저는 그냥 이 어린 후배들의 리포트를 도와주고 있었을 뿐 이예요.” 그러면서 제니는 손가락으로 스테파니, 다씨 그리고 앨리를 가리켰다.

“애들아!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보렴, 그럼 또 보자!” 사서 마슨씨는 자신의 책상에 다시 앉았다. 스테파니는 두 손을 허리에 대고 다씨와 앨리를 바라보았다. “저 말하는 것 좀 봐!”

“애들아!” 다씨가 화가 나서 말했다. “애들아! 저 언니는 자기가 우리 할머니쯤 된다고 생각하나봐.”

“저 언니는 정말 기분이 나빠!” 앨리도 동감했다. “아직 우리는 시작도 못한 멋진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다는 말을 믿니? 이걸 계속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절대 포기할 순 없어!” 스테파니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난 포기 안 할 거야! 그리고 너희 둘도 절대 지면 안 돼. 우리가 학교 역사상 전교에서 처음으로 가장 크고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자. 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니?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멋진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야. 제일 멋진 계획!”

“왜 거기서 멈추니?” 다씨가 웃었다.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멋진 계획?”

“좋았어!” 스테파니가 자신만만해하며 말했다. “좋아, 우리가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까지 이번 일을 포기하지 말자!” 스테파니가 발로 회전의자를 제자리로 돌려놓고는 털썩 앉았다.

“자,” 스테파니가 말했다.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 CHAPTER

### 2

그날 저녁, 스테파니는 침대에 벌렁 드러누운 채로 누워 공책을 펴고, “기금 모으기 아이디어” 라고 빈 면 맨 위에 깔끔하게 써 넣었다. 스테파니는 자기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번 일을 멋있게 해낸다면 전교생들이 스테파니가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 두고 보자.” 스테파니는 큰 소리로 외친 후 목록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세차는 항상 했던 거고, 알뜰시장? 아님 작년에 고등학교 밴드부가 집집마다 사탕을 팔던 것도 괜찮던데.”

스테파니는 자기가 적어놓은 것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리고는 인상을 지으며 목록에 적은 것들을 두꺼운 검정 선으로 지워버렸다. “지-루루루-해.”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아이디라고 하기엔 정말 흔해 빠진 것들이야. 크게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디제이 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인 키미 김블러가 뒤따라서 들어왔다. 이 둘은 7살 난 미셸의 손을 한쪽씩 짚 쥐고 있었다.

“여기가, 미셸,” 디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가 네 방이야, 마루 끝에 있는 방이 아니고. 거긴 내 방이야. 키미와 나는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 불어 시험이 있거든. 그 점수가 성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comprenez -vous (이해해줄래)?”

“Underdtanday voo-ya you (제발 좀 이해해줘, 응)?” 키미가 덧붙였다. 스테파니가 일어나서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언니들은 고등학교 중간에 갑자기 새 언어를 배우는 거야?”

“스페인어 선생님께서 내게 언어에 소질이 있다고 하셨거든,” 디.제이가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난 너무 못한다고 하셔!” 키미가 말했다.

“여기도 미셸이 있을 수 없어.” 스테파니가 말했다. “난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일이 있거든.”

“스테파니 언니, 난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야.” 미셸이 받아쳤다. “이 방은 내방도 되잖아!”

“이따가 보자. 스테파.” 디제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au revoir (안녕!)”

“Tootle-oo-ay voo (이따가 보자!)” 키미가 말했다. 두 언니가 문을 닫고 방을 나가버렸다.

스테파니는 획 나가버리는 언니들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알았어, 미셸.” 바닥에 털썩 엎드리면서 스테파니가 말했다. “여기 있어도 좋긴 한데 너 구역에서만 놀아. 그리고 시끄럽게 굴지 말고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어.”

“알았어.” 미셸이 대답했다. 미셸은 그 방의 자기 공간으로 가서 침대에 앉아 큰 개구리 인형을 집어 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월요일 학교에서 새로 배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백 마리의 꿈틀거리는 지렁이들,  
호, 호, 호!  
백 마리의 꿈지락거리는 지렁이들,  
오르락, 내리락!  
오, 요 꿈지락, 꿈틀 지렁이들  
어디로 가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노래를 한번 부르고나더니, 미셸은 침대로 다시 뛰어 올라와 또 한 번 불렀다.

노래를 부르면서, 오르락 내리락 요동을 치며 후렴 부분을 부르면서 방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스테파니는 잡았던 연필은 내려놓고 미셸을 쳐다보다가 이를 짹 물고 말했다. “미셸, 너 경고야.” 한 번만 더 그 바보 같고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면 너...너 정말...가만히 안 놔줄 거야!”

미셸은 더 노래를 부를 엄두를 내지 못했고, 스테파니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더니 미셸은 스테파니의 침대 바로 옆에서 몸을 비틀고 노래를 다시 한 번 불렀다. “백 마리의 꿈틀거리는 지렁이들, 호, 호, 호! 백 마리의 꿈지락 지렁이들, 오르락 내리락!”

“너 딱 걸렸어!” 스테파니가 큰소리로 질렀다. 그리고는 바로 침대로 로라가 미셸을 잡으려고 했다. 미셸은 도망가면서 귀가 찢어 질듯 한 비명 소리를 질러 냈다. 그 순간 베키가 문을 열고 미셸의 머리에 골밤 하나

먹었다. 그런 베키의 양팔에는 말쑥꾸러기 쌍둥이들이 한 명씩 매달려 있었다.

“이제 됐지?” 베키가 물었다. “나는 이 방에서 알람이 울리는 줄 알았잖니!”

“아무 일 아니예요.” 스테파니가 조용히 말했다. “미셸이 그 바보 같은 지렁이 노래 안 부른다면 괜찮아요!”

베키 숙모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난 그 노래가 아주 귀엽던데.” 숙모는 두 쌍둥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니키와 알렉스도 그 지렁이 노래를 좋아하잖니. 그렇지 애들아?”

“지렁이,” 니키가 불렀다. “호, 호!”

“꿈틀,” 알렉스도 따라 불렀다. “음 꿈지락!”

“오, 제발 좀,” 스테파니가 괴로워했다. “그 노래 좀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베키가 또 웃었다. “참 잊어버릴 뻔했네, 스테프,” 베키가 말했다. “지난주에 말했던 영화 편집강의에 드디어 신청을 했단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네가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와서 애네들을 돌봐야겠어.”

“좋아요.” 스테파니는 기꺼이 동의했다. “근데, 이 일을 어찌지!” 스테파니는 생각했다. 스테파니는 베키 숙모가 아기 돌보기를 부탁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 지를 떠올렸다. 그러나 애들을 돌보는 것은 진짜 큰 일이었다. 매주 그 시간에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빨리 하고 싶어요-” 스테파니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그런데 베키 숙모, 화요일 오후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었다.

숙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억해, 너 쌍둥이들 봐주기로 약속 한 거다. 그래야 내가 그 강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개네들을 봐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등록도 한 거야.”

그러나 순간 스테파니는 속으로 끄끄 거렸다. 베키 말은 확실히 옳았고, 스테파니는 쌍둥이 니키와 알렉스를 매주 화요일 오후에 봐주기로 이미 동의를 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기금마련 추진회 모임에 일이 있기 전이었다.

“근데, 이를 어떻게요, 베키숙모,” 스테파니가 말했다. “수업을 다른 날로 바꿀 순 없나요? 화요일마다 학교에서 기금마련 추진회 모임을 운영해



야 하거든요.”

“애야 어찌지 그럴 순 없는데,” 베키가 말했다. 베키도 약간 당황한 듯 보였다. “그 강의는 화요일에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강의도 유명한 선생님이 하시는 마지막 수업이고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최고의 실력파거든. 또 이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은 수업료 계약금을 이미 내버렸고 중도포기를 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아. 난 네가 쌍둥이를 잘 봐 줄 걸로 철썩같이 믿고 있었는데.”

베키는 방으로 들어와서 미셸의 침대에 앉았다. 니키와 알렉스는 베키의 팔에서 떨어져 나와 미셸의 동물 인형들을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만약 네가 우리 애들을 돌 볼 수 없다면,” 베키가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강의를 못 듣게 될 것 같구나.”

스테파니는 베키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는 숨을 죽이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임을 느꼈다. 베키숙모는 항상 가족 모두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지금, 베키숙모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실망을 안겨 준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게다가, 스테파니는 혼자 생각하기를 처음으로 해보는 아기 돌보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번 기회는 스테파니가 가족에게 자기도 다. 제이 언니만큼 성숙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걱정 마세요 쌍둥이 돌보는 일을 해보도록 할 게요. 베키 숙모!” 스테파니가 말했다. “추진회 모임 문제는 어떤 수가 생길 거예요. 애들 보는 일은 제게 맡기시고 수업 받으세요. 니키랑 알렉스는 제가 알아서 할 게요.”

베키가 일어서서 밝은 미소를 지었다. “믿어도 되지, 스테파?” 베키가 재차 물었다.

“그럼요!” 스테파니가 말했다.

“그래 고맙구나. 오래 전부터 받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강의거든.”

베키는 쌍둥이를 데려가려고 주위를 돌아보았고 그들이 미셸의 침대 아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서 쌍둥이들을 나오게 했다. “애들아,” 베키가 말했다. “침대 아래 먼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와우!” 스테파니가 말했다. “아빠가 정말 좋아하시겠네. 아빠는 최신청소용구를 빌려 쓸 수 있는 클럽의 회원이시니까요.” 스테파니의 아빠인 데니는 집안에 더러운 것을 보면 그대로 못 넘기는 청소광 이었다.

“너 그 청소기 말이구나.” 베키가 물었다. “강력한 흡수력과 진동 빗자루가 달린 거 말이지?”

“예.” 스테파니가 말했다. “보통 것들보다 6피트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아빠를 부를게.” 미셀이 문 쪽으로 빨리 걸어가면서 말했다. “오늘은 정말 아빠의 날이 되겠는데.”

베키는 쌍둥이를 번쩍 들고는 미셀을 따라 방밖으로 나갔다. “스토프야 애들 돌봐주기로 한 거 정말 고마워!” 베키가 어깨 너머로 스텐프를 부르며 말했다.

“웬찮아요!” 스텐프니가 대답을 하며 한 숨을 지었다. 다시 한 번 스텐프니가 말했다. “웬찮지 뭐.” “나와 6학년 기금모금 위원회만 빼곤!”

스테파니는 침대로 벌렁 드러눕고는 추진회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모터가 웅웅 돌아가는 소리에 눈을 떴다. 스텐프니는 자기가 조금씩 잠들고 있었다는 걸 알고 침대에서 한번 뒹굴더니 눈을 들고 방을 보았다.

스테파니의 아빠는 이미 바닥을 기면서 미셀의 침대아래를 살살이 청소하고 있었다.

“잡았다!” 데니가 기빠서 외쳤다. 요 작은 먼지 악마야, 내가 널 못 잡을 줄 알았지, 그렇지? 어느 누구도 이 초 강력 회전 청소기의 힘을 피할 순 없어! 하, 하, 하!”

데니는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스텐프니를 보았다.

“오, 안녕, 내 귀염둥이, 오늘은 아주 조용하네, 네가 거기 있는지 몰랐구나.” 데니가 일어섰다. “애야 이 새 청소기로 침대 밑을 청소해 보겠니? ”이건 6피트나-“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스텐프니가 말을 대신하였다. “알아요, 하지만 안 할래요. 아빠,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요!”

데니가 의아해하며 쳐다봤다. “그러렴.” 데니가 말했다.

“혼자서 차분히 생각 하거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의논하고 싶으면 아빠에게도 알려 주렴.” 데니는 청소기의 회전 머리판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그럼 내일 밤에는 아빠랑 함께 청소할래?”

“네, 내일은 할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다음날 점심까지는 청소하는 일이 스테파니에겐 뒷전 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가면서 자신에게 계속 되물었다.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있게 나를 복제를 할 순 없나?

“어휴, 정말 모르겠어.” 엘리와 다씨가 식판을 들고 와 앉을 때 스테파니가 말했다.

다씨가 식판의 음식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근데 이 요리 이름이 뭐지?”

“스파게티?” 엘리가 잘 모르고 있는 듯이 말했다.

“이건 마치 꼼지락 꼼지락 거리는 지렁이들 같다.” 스테파니가 아무생각 없이 말했다.

“호, 호, 호,”

엘리와 다씨가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스테파니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둘이서 괴성을 질렀다.

스테파니는 무안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 하고 말했다.

“미셀이 이 유치한 벌레 노래를 계속 불러 대서 아예 내 머릿속에 박혀 버렸나봐.”

“그럴싸한데.” 다씨가 중얼거렸다. “점심으로 지렁이래.” 다씨가 식판을 치우며 말했다. “어차피 스테파니 네가 지금 내 밥맛을 뚝 떨어지게 했으니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자.”

“대강 계획 잡은 거 한 번 더 보여줄래?” 엘리가 말했다.

“더 좋은 수가 있을 지도 몰라.”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 스테파니가 말했다.

“다음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에 니키와 알렉스를 돌봐주기로 베키와 약속해 버렸어.”

“앞으로 돌아오는 화요일 세 번은 도서관기금마련 추진회 모임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 다씨가 말했다.

“맞아.” 스테파니가 말했다. “그런데 난 숙모를 실망시킬 수 없어. 물론 6학년 전체 친구들을 실망시킬 수도 없고!”

스테파니가 고민을 하며 빵을 식당 테이블에 갖다 뒀다. “눈앞이 깜깜해.”

“스테프, 무슨 수가 있을 거야.” 앨리는 이렇게 말하며 다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너 그건 안 먹을 거면 내 샌드위치라도 좀 먹어.” 앨리가 권했다.

“아, 알았어!” 다씨가 힘차게 외쳤다.

“너 그 요리 이름이 뭔지를 안다는 거니?” 스테파니가 물었다.

“아니!” 다씨가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거야! 앨리와 내가 공동회장이 되어줄게. 그래서 우리가 회의 때마다 너 대신 참석을 하면 되잖아. 이미 우린 이 위원회 회원이기도 하니까.”

스테파니가 다씨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스테파니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래도 너희들 괜찮겠니? 그렇게 되면 그 일을 너희들이 맡아서 다 해야 하잖아.”

“아니, 그렇진 않아.” 다씨가 앨리의 샌드위치를 한 입 먹으며 말했다.

“그래도 넌 많은 계획들을 생각 해내야해. 그리고 우린 이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네가 일을 많이 하게 할 거야.”

“우린 그냥 회의를 진행 하고 있는 거지.” 앨리가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땐 우리가 집에서 전화를 할게. 어때니, 스테파?”

스테파니는 일어나더니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너무 고마워 애들아, 그렇게라도 해 보자!” 친구들을 향해 스테파니가 미소를 지었다.

“너 그거 아니?” 스테파니가 기쁜 듯이 말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고 결국엔 멋진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말이야!”

## CHAPTER

### 3

다음날 화요일 스테파니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다급해 하는 조이, 디제이, 그리고 제시를 만났다.

“다들 어디 가는 거예요?” 스테파니가 물었다. 조이가 먼저 대답했다. “난 코미디 클럽에서 하는 연주회를 가는 길이야.” 조이가 말했다. “거기서 난 동물의 분장을 할 거야. 지내와 앵무새역할을 할거거든.”

“조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지?” 디제이가 물었다.

“위키-토키!” 조이가 대답했다. 그러면서 조이는 목 끊는 소리를 계속 만들어냈다. “지지지지. 프스스스 바바바바!” 제시가 눈동자를 굴렸다. “조이, 그래, 하루 종일 그거나 해라.”

“제시 삼촌, 이걸 내가 매일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조이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가요, 제시 삼촌?” 스테파니가 물었다.

“오늘 중요한 밴드 리허설이 있거든, 스테프야. 우리 밴드가 Look Back에서 열리는 엘비스 쇼에서 다음 주 공연이 있어. 그리고 아직도 우리그룹 ‘Hound Dog’에 연주를 제대로 못하는 골칫덩어리들이 많아.

“코메트의 벼룩 파우더는 써봤어요?” 조이가 물었다.

“조이, 너 코미디언 해도 되겠는걸.” 제시가 스테파에게 말했다.

디.제이가 자기 손목시계를 보았다. “난 이미 오늘 스티브를 만나는 건 늦었어.” 디제이가 말했다.

“오늘 우리 불어 공부하는 날인데. Au revoir (아무튼 나 간다. 또 보자).”

디제이가 현관계단을 내려가자, 스테파니, 제시, 그리고 조이가 서로 즐거운 눈빛을 나눴다. 디.제이와 남자친구 스티브는 언제나 함께 공부하는 날을 가지려고했다. 하지만 그 둘은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이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스테프, 처음으로 애 돌보기를 해 볼 준비가 됐니?” 제시가 물었다. “물론이죠,” 스테파니가 대답했다.

“대단한데,” 제시가 말했다. “베키는 네가 두 꼬마악동들을 돌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안에서 너만 기다리고 있단다. 넌 애들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제시 삼촌은 손을 올려 스테파니의 긴 황금색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스테파니는 활짝 웃었다. 스테파도 까치발로 서서 제시삼촌의 머리를 만지려 했다. 그러나 제시삼촌이 스테파니의 손을 쥐고 말했다. “스테프, 머리는 만지지 마라! 헝클어지면 안 돼!”

조이는 서둘러 가려했다. 마치 ‘암소가 수소에게 말하듯이’ 제시가 말했다. “애들아 움직여 볼까 내가 데려다 줄게. 스테파니는 행운을 빈다!”

“고마워요, 삼촌”

스테파니는 거실로 갔고 지렁이 노래를 부르면서 방 주위를 행진하던 미셸과 부딪쳤다.

“꿈지락거리는 백 마리 지렁이들,

호, 호, 호!

꿈틀거리는 백 마리 지렁이들,

오르락, 내리락!

오, 꿈틀꿈틀, 꿈지락 지렁이들

어디로 가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미셸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구나.” 스테파니가 혼잣말을 했다. “그만 나가시지!” 스테파니가 말했다. “그 유치한 노래를 계속 부르면 창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갈 거야.” 미셸이 말했다. “에니의 엄마가 허니비즈 모임 때문에 날 데리러 오면 갈 거라고.”

“그럼, 오실 때 까지 만이라도 제발 다른 노래를 해!”

미셸이 “아기 벨루가”의 활기찬 코러스 부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베키 숙모가 급하게 거실로 들어오는 통에 미셸은 노래 부르는 걸 멈췄다. “오, 스테프 네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베키가 말했다. “쌍둥이가 지금 부엌에서 점심 간식을 달라고 야단이야 내가 너무 늦게 왔어. 기억해 둘게 있어. 니키에게는 귀 염증 약을 4시 정각에 먹여야해. 양은 내가 맞춰 놓았어.”

베키가 지갑과 번들거리는 빨강색 새 공책 집어 들었다. “그리고 알렉스가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쌍둥이들을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밖이 여전히 쌀쌀하더라고. 그리고 담요는 항상 니키가 곁에 두도록 해 주겠니 그게 없으면 신경질을 부리거든. 휴! 얘기 할 건 다 한 것 같아.” 베키가 문 쪽으로 가다가 고개를 돌렸다. “스테파 할 수 있겠지?” 라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스테파니가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그럼 난 가볼게! 정말 고마워. 한 두 시간 후면 올 거야.” 베키가 문을 열어 말했다. “미셸, 에니의 엄마가 와서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베키와 미셸이 손을 흔들면서 함께 나갔다.

스테파니는 부엌으로 재빠르게 갔다. 알렉스와 니키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소풍 식탁에 앉전히 앉아 있었다. “안녕 애들아!” 스테파니가 말했다.

“너희들 배고프니?”

“배고-빠!” 알렉스가 말했다. “씨이-위얼쥬!”

“씨이-위얼?” 스테파니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면서 따라했다.

알렉스가 반대편 탁자 쪽에 있는 토스티오즈 상자를 가리켰다. “씨이-위얼!” 알렉스가 말했다.

“오!” 스테파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 씨리얼 말이구나.” 스테파니는 찬장을 열고 한 쌍의 플라스틱 미키마우스 그릇 두 개를 꺼냈다. “주문한 씨리얼 2인분 나오고 있습니다요.” 스테파니는 냉장고에서 신제품 우유를 꺼내서 개봉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릇에 비우려하자 전화벨이 울렸다.

“잠깐만 애들아.” 스테파니가 쌍둥이들에게 말했다. “금방 올게.”

그리고는 전화를 받으러 뛰어갔다. “여보세요?”

“스테파 안녕, 나야 다씨.”

“어, 그래. 다씨, 회의는 잘 되가니?”

“어, 내 생각에는. . . 저기,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약간의 문제가 좀 있거든.”

“뒤에서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는 다 뭐니?” 스테파니가 물었다.

“이거 추진위원회 회의 때문애!” 다씨가 말했다.

“우리가 뽑은 애들이 점점 제멋대로들 놀고 있어. 몇몇 남자애들은 종이뭉치 공 만들기까지 하고 있어!”

“오, 맙소사!” 스테파니가 말했다. “정말 통제 불능이구나, 기금마련 계획을 내놓은 애는 없니?”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거야.” 다씨가 말했다.

“크리스토퍼 리플이 세차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았어. 그리고 카라 랜드포드가 자기 이모인 에드나에게 레몬 양귀비 씨로 케익을 만들어 달래서 그 빵을 팔자는 의견을 냈어. 어때,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니?”

쿵쿵! 갑자기 스테파니 등 뒤에서 쿵하는 커다란 소리가 났다. “아이구, 쌍둥이들이 기어코 일을 냈구나” 스테파니는 생각했다. “다씨, 나 가 봐야해!” 수화기를 급히 제 자리로 놓으면서 스테파니가 말했다. 그리고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다.

“오, 안 돼!” “너희들 대체 뭐 하는 거야?”

스테파니가 잠시 통화를 하는 동안, 니키가 탁자에 올라가서 우유 한 팩을 넘어뜨려 었질렀다.

부엌 바닥의 절반이 우유로 젖어버렸다. 니키는 완전히 우유 범벅이 된 바닥에 앉아 즐거워하며 두 손으로 엉망이 된 바닥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코메트는 탁자 밑에서 우유 몇 방울이 입으로 떨어지길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리고 부엌 바닥의 다른 반은 알렉스가 열려고 하다 쏟아 버린 토스티오즈로 뒤 덮여 있었다. 그리고는 알렉스도 마냥 재밌어 하며 바닥에 널려진 씨리얼을 주워 먹고 있었다. 알렉스는 씨리얼을 끈적거리는 두 손에 가득 집어 먹으면서 마냥 좋아했다.

“이거 완전히 우유 홍수잖아.” 스테파니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씨리얼 산사태야. 너희들이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구나, 코메트, 나가있어, 제발. 지금 당장!”

개가 방밖으로 나가는 동안, 스테파니가 우유 범벅이 된 바닥 주위로 발을 내딛자 쏟아져 있는 토스티오즈가 부지직 부지직 밟히는 소리가 났고, 그러면서 스테파니는 알렉스를 안아 올렸고 두 손으로 알렉스를 안고는 방을 지나 싱크대로 갔다. 스테파니는 알렉스의 손에 붙은 씨리얼 부스러기들을 씻어내고 두 팔, 얼굴, 옷, 머리 그리고 무릎까지 씻어냈다. 그런 다음에 스테파니는 알렉스를 어린이용 의자에 앉혔다. 알렉스에게 벨트를 메주는 사이에 니키가 우유가 범벅된 곳에서 간신히 걸어 나오더니 토스티오즈가 뒤덮힌 바닥으로 갔다. 스테파니는 니키를 데리고 나와 싱크대에서 여러 번 씻고 닦아내었다.

그리고 스테파니는 그 쌍둥이를 어린이용 의자에 나란히 앉혀서 벨트를



매어 주고 나서 온통 우유로 덮힌 바닥을 청소 했다. 우선 그녀는 스폰지로 주방 조리대를 닦았다. 그것을 마치고는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토스티오즈를 닦아내려 할 때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세우고는 전화를 받으러 달려갔다. 이번엔 엘리였다.

“안녕, 스테파니. 우리 아직도 도서관이야.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스테파니는 예서 쌍둥이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친구 엘리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엘리? 크게 말해줄래? 안 들려!”

“뭐냐 하면.” 엘리가 다시 말했다. “리지네 티몬스가 교무실을 지나가다가 7학년 추진회가 프로젝트에 대하여 회의 하는 걸 봤데. 근데 개네도 세차와 빵 팔기를 한다는 걸 들었데. 그리고 다들 그러는데 프로젝트가 같으면 안 된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글쎄, 아무튼 마쓰씨가 얘기했듯이 크게 생각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

“와아아아하하하하!”

스테파니가 재빠르게 몸을 돌려 니키와 알렉스가 빗자루 손잡이를 잡고 줄다리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애들아, 그만!” 스테파니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스테파니는 쌍둥이들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은 후 불만한 책을 쥐어주었다.

“배고-빠!” 니키가 책을 던져버리면서 말했다.

알렉스도 “씨이-위얼 쥐!” 라고 말하며 같이 책을 내팽겨 쳤다.

스테파니는 피곤한 듯, 부엌으로 가로질러 깨끗한 그릇들을 가지러 갔다. 그리고는 방금 전 자기가 쓸어놓은 토스티오즈 더미 바로 옆으로 걸어갔다. 작은 레몬-, 포도-, 라임-, 그리고 나무딸기 색깔의 토스티오즈들이 깨끗한 바닥에까지 굴러가서 널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뒷문이 열렸다.

디제의 친구 키미가 고개를 부엌 안으로 내밀었다.

“야-호, 누구 없어요?” 키미가 말했다.

바로 이거야, 그 순간 스테파니는 생각했다. 만약 키미가 이 광경을 가족에게 말한다면 다들 내가 아기 돌보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없어, 키미,” 스테파니가 짧게 대답했다.

키미는 스테파니의 말을 듣고도 그냥 집 안으로 들어왔다. “디제이가 아직도 집에 안 왔나 보려고,” 집안으로 들어오며 키미가 말했다. “우리는 좀 더 붙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키미는 부엌바닥이 엉망이 된 걸 보더니 갑자기 얘기를 멈췄다. “바닥에 무슨 난리니?” 키미가 놀라서 물었다.

스테파니는 두 손을 엉덩이 뒤로 가져갔다. “아무 것도 아니 예요” 라고 스테파니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 예요. 그리고 키미언니가 우리 가족 누구에게라도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디제이 언니에게 새로 산 각반을 허락 없이 빌려가서는 뜨거운 물에 빨아서 바비인형이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쪼그라들게 해버렸다고 일러버릴 거예요!”

“알았어, 알았다구.” 키미가 재빠르게 대답했다. “그래, 신경 쓰지 마. 난 아무것도 못 본거야.”

“그리고 디제이 언니도 스티브와 함께 공부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나가 버렸어요.” 스테파니가 덧붙여 말했다. “여기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 거면 지금 여기 있어야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아, 갈게. 가고 말고!” 키미가 문밖으로 뒷걸음질 치며 나오면서 말했다. “하지만 저녁시간에 다시 들리게 될지도 몰라. 이 음식들을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졌거든.”

“배고-빠!” 키미가 문을 닫자 알렉스가 또 징징거렸다. 알렉스는 바닥에 씨리얼을 가리키며 말했다.

“시이-위얼. 나 줘!”

“이건 더러워서 못 먹어,” 스테파니가 발바닥으로 시리얼을 밟아 부수면서 말했다. “먹을 게 뭐 있나 보자.” 스테파니는 찬장을 열었다. “어디 볼까, 오트밀기울 먹을래? 통 그라 놀라? 아니면 스웨덴식 뮤슬릭스?”

“싫어, 싫어!” 둘이 함께 소리쳤다.

스테파니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쌍둥이들을 바라보았다. 이 정신이 없는 순간, 스테파니는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했다.

“조용!” 스테파니가 큰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그것들 외에 다른 간식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결국 쌍둥이들은 여러 종류의 곤충 모양을 한 작은 그릇의 피자 맛 과자를 먹고 싶었다.

스테파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좋아, 애들아. 지금부터 개구리가 되어서 이 작은 곤충들 먹어치우는 거야.”

“개꿀이!” 알렉스가 외쳤다. “토끼처럼 짱충! 짱충! 뛰어! 뛰어!”

“밖으로! 밖으로!” 니키도 같이 외쳤다.

두 쌍둥이들은 간식 먹기로 한 일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앉아있던 높은 의자에서 내려와 놀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며, 스테파니는 쌍둥이들의 의자 벨트를 풀고 내려 놓아 주었다. 그러자 바로 이 둘은 “토끼! 토끼!” 를 외치면서 방 밖으로 개구리처럼 뛰어나갔다. 스테파니는 잔뜩 못 마땅해 하며 쌍둥이들을 따라갔다.

몇 분 동안 거실 의자 주위에서 개구리 잡기를 한 후 스테파니는 니키와 알렉스를 데리고 가서 책을 보게 했다. 그리고 다시 전화벨이 울릴 때쯤 쌍둥이들은 한창 Runway Bunny를 읽고 있었다.

“안녕, 스테파! 또 나야, 다씨. 카라가 그러는데 빵 팔기에서 자기가 만든 레몬 양귀비씨 케이크를 팔지 않으면 추진회에서 나가겠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다씨가 이렇게 말하자, 스테파니의 목소리는 약간 화가 난 것처럼 들렸다. “난 빵 팔기를 하는 것조차 생각 안 해봤어!”

“그런데, 소리는 왜 지르니 스테파니. 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의 생각을 알고 싶었던 것뿐이야-”

“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스테파니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알렉스가 니키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오우우우우우우!” 니키가 말했다.

다시 한 번 스테파니는 전화기를 내동댕이치고 니키를 구해 주려고 달려갔다. 그때 스테파니는 디지털 시계 시간이 4시 45분인 것을 보았다.

“아이고, 이걸 어째!” 스테파니가 생각했다. “내 정신 좀 봐. 니키 약 먹일 시간이 45분이나 지나버렸잖아!” 스테파니가 알렉스를 니키에게서 떼어놓고 울고 있는 니키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괜찮아 니키야.” 스테파니가 안아주면서 달래주었다.

“자 분홍색 약 먹을 시간이야.”

“이부쥬. 이부.”

“이부? 꿀꿀이 저금통말이구나?”

“아니니니니니! 이부! 으으앙아앙!”

스테파니는 니키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눈으로 부엌 주위를 돌

러보며 니키가 하는 말이 뭔지 필사적으로 알아내려 했다. 그 순간 베키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났다.

“아, 니키 이불 말이구나!”

니키는 스테파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니키도 “이부,” 라고 하면서 그게 맞다고 했다.

스테파니는 니키를 내려놓고 모든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싱크대 아래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못 찾겠어, 니키야.” 스테파니가 한참을 찾다가 말했다. “니키 여기엔 이불이 없어. 윗 층에 있는 것 같아.”

니키가 방을 아장아장 걸어 나가서 바로 뒷문 안쪽에 놓여있는 데니의 원예용 방수 덧신을 손으로 가리켰다. 니키는 검정색의 큰 부츠 한 짝이 있는 데로 가서는 헝고 색이 바랜 파랑색 플란넬 담요를 잡아당겼다.

스테파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다. 너 이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구나.”

니키는 그 담요를 끌어안으며 스테파니를 보면서 밝고 환하게 웃었다. 스테파니는 니키를 안아서 약을 먹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치우다 만 토스티오즈를 서둘러 닦아냈다. 스테파니가 니키를 다시 거실로 데려 왔을 때 이번에는 알렉스가 거실 의자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조심해,” 스테파니가 말했다. “떨어지면 안 돼.” 스테파니가 말하자 알렉스는 균형을 잃었고 그 순간 또 전화벨이 울렸다.

스테파니는 니키를 내려놓고 알렉스가 의자에서 떨어지기 바로 전에 그를 잡고는 전화를 받으러 뛰어갔다.

“안녕, 스테파니, 또 나야 다씨.”

이때 알렉스가 우는 걸 그치고는 전화기를 잡아 당겼고, 그 순간 통화가 끊겼다. 2초 후 전화벨이 또 울렸다.

“조용해!” 스테파니는 전화가 있는 쪽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곤 이마를 찰싹 치며 말했다. “휴 미치겠다. 전화에다 대고 소릴 지르는 걸 보니 내가 정신 나갔나봐!”

스테파니는 알렉스를 내려놓고는 다시 한 번 전화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전호를 받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방안에서 스테파니는 고민했다.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런 통제 불능의 일을 화요일마다 다섯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 CHAPTER

### 4

스테파니는 베키가 집으로 돌아 올 때 썸 쌍둥이들이 얌전히 블록 탑 쓰러뜨리기 게임을 하고 있도록 해 놓았다.

“안녕, 애들아!” 베키가 말했다. “스테프도 안녕!”

“엄마!” 니키와 알렉스가 외쳤다. 쌍둥이들은 허둥지둥 엄마에게 가서 무릎주위를 부둥켜안았다.

“안녕, 내 귀염둥이들.” 베키가 말했다. 베키는 공책과 지갑을 옆으로 치워놓고 몸을 숙여 뽀뽀를 해주면서 두 아들을 꼭 껴안았다. “착하게 잘 있었니? 오늘 어땠니, 스테프?”

스테프는 재빨리 생각했다. 그리고 자시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사실 데로 말한다면, 베키는 애들 돌보는 일을 그만두라고 할 거야. 그리고 아빠와 가족 모두가 나를 정말로 어리다고 여길 거야. 어쩔 좋지?

스테파니는 말문을 열고 얘기를 시작했다. “음, 저기요.” 스테파니가 말했다. “저기,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무 일 없이 잘 있었고 씨리얼 스낵도 조금 먹었어요-”

“씨이-위이얼!” 알렉스가 외쳤다. “씨이-위이얼!”

“우유!” 니키가 거들었다. “우유!”

베키가 당황한 듯 보였다. “너희들 우유랑 씨리얼 먹으려고?” 베키가 스테파니 쪽을 보았다. “애네들 간식 다 안 먹었니?”

스테파니는 당황해 불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 예. 예 먹었어요.” 스테파가 급히 대답했다. “사실, 꽤 많이 먹었어요. 음, 너희들 다시 탑 놀이하지 않을래? 너희들이 무너뜨릴 큰 탑을 만들어줄게.”

“큰 탑,” 알렉스가 말했다. “길게. 광!”

“자, 이리로 와!” 스테파니가 끼어들었다. “지금부터 길고 커다란 탑을 만들자, 나중에 너희들이 무너뜨려. 알았지?” 스테파니는 블록을 쌓아서 휘청거리는 큰 탑을 재빠르게 만들기 시작했다. 알렉스와 니키가 스테파니 뒤를 아장아장 따라다녔다. 스테파니가 블록하나 더 쌓으려 할 때 알렉스가 손으로 쳐서 무너뜨려버렸다.

“또해줘!” 알렉스가 소리쳤다. “타압 더!”

베키가 일어나서 바닥에 던져놓았던 지갑과 공책을 집어 들었다. “어떻

게 고마워해야할지 모르겠네, 스테파니. 쌍둥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고 있구나.” 베키는 부엌 쪽으로 향했다. “커피를 좀 만들고 조이가 오늘 저녁으로 뭘 먹고 싶다고 메모를 남겼는지도 봐야겠다.”

스테파니는 서둘러서 자기 어깨가 넘는 또 다른 탐을 쌓기 시작했다. “그런데, 베키숙모, 수업은 어땠어요?”

“오, 정말 멋진 수업이었어!”

“그럼.....앞으로도 수업을 계속 받으실 건가요?”

“물론이지,” 베키가 대답했다. “이 수업이 맘에 들어. 다음 주 수업까지 어떻게 기다린담. 최고의 강의였어.”

“넌 숙제랑 빠듯한 계획들이랑 쌍둥이들 돌보는 일이랑 다 해낼 수 있겠니?”

“아주 멋져, 스테파,” 베키가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다. “강사가 오늘은 과제를 하나도 안주셨어. 굉장하지?”

“좋겠네요,” 스테파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끝내주세요.”

스테파니는 조이가 몇 분 후 현관문을 열 때도 여전히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안녕 스테파니.” 조이가 들어오며 인사했다. “집이 무사하구나. 네가 애들 돌보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모양이네. 어땠니?”

“할 만 했어요.” 스테파니가 말했다. “오디션은 어땠어요? 일을 구했나요?”

“그래 구했지!” 조이가 기뻐하며 대답했다. “내가 그들한테 해준 농담을 들어봐: 선생님이 한 어린 소년에게 말했어. ”토미 네 연필이 어떻게 된 거니?”

“그래서 토미가 대답했단다. ”전 연필이 없는데요.”

선생님이 말했어.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 해야겠니, 토미? 자 들어봐: 전 연필이 없어요. 넌 연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들은 연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토미?

“잘 모르겠어요.” 토미가 말했다. 내 말은 모든 연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야?”

조이가 자기 무릎을 쳤다. “그 이야기 하나로 면접관들이 다 배꼽을 잡았지 뭐야,” 조이가 말했다. “난 가끔 혼자 자지러지게 웃곤 하지!” 다시 웃고는 멍한 표정으로 조이를 보고 있던 스테파니를 바라보았다. “스테파, 내 농담이 재미가 없는 모양이구나, 너만 괜찮다면 힘이 날만한 웃긴

애길 하나 더 해 줄까?”

스테파니가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조이,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농담해주셔도 웃지도 않고 죄송해요.”

“괜찮다.” 조이가 말했다. “저녁을 먹으면 기분이 괜찮아 질 거야. 오늘 빵가루를 곁들인 나의 유명한 4층짜리 치즈 카로니를 만들 거란다. 네가 항상 좋아 했잖니.”

하지만 4층짜리 치즈 마카로니도 스테파니의 기분을 달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전날 도서관에서의 6학년 추진회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안 이상 스테파니의 기분은 다음 날도 나아지지 않았다. 스테파니가 사물함을 사물함에서 사회 연구 책을 꺼낼 때 다씨와 엘리가 서둘러 오고 있었다.

“스테파니!” 다씨가 말했다. “다음 회의에는 꼭 참석해야해. 저번 회의는 네가 없어서 정말 엉망이었어.”

“지옥 같았어,” 엘리도 동의했다. “말하긴 그렇지만 정말 끔찍했어.”

스테파니가 사물함을 쾅하고 닫았다. “도대체 얼마나 안 좋았다는 거야?” 스테파니가 물었다. “내말은 그러니까 어땠냐고?”

엘리가 다씨를 쳐다보면서 눈동자를 굴렸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씨 네가 스테파니한테 말해.”

“아직 문제가 많아.” 다씨가 말했다.

“애들한테서 쓸 만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쓸 만한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 엘리가 말했다. “그리고 몇 개의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7학년들이 이미 하기로 했데.”

“그래서 애들 모두가 불평불만을 털어놓기 시작 한 거야.” 다씨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는 많은 애들이 막무가내로 행동 했어! 나중엔 카라 랜드포드는 우리 추진회가 바보 같다고 했고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게다가 한 무리의 애들이 단체로 6학년 추진위원회를 그만 두겠다고도 했어!”

스테파니가 괴로워했다. “개네들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 스테파니가 말했다. “이 전체 계획은 실패 할 것 같아. 마스씨에게 가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야, 스테파니! 다씨! 엘리!”

이 셋은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조쉬 힐맨, 켈럽 파커, 그리고 새로 온, 론 마틴즈가 복도를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이 3명의 소녀들 쪽으로 오고 있었다.

갑자기 스테파니는 자기가 어떻게 보였는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오, 안 돼. 스테파니는 생각했다. 왜 내가 지난주 백화점에서 산 반짝이는 새 포티 나인너즈 자켓을 입고 오지 않았을까? 왜 내가 아침에 아무생각 없이 이 평범하고 오래된 회색의 헌 티셔츠를 입고 왔을까?

“우린 방금 도서관에서 6학년 얘기 들었어.” 조쉬가 스테파니에게 말했다. “너도 추진회에 있니?”

“음, 응,” 스테파니가 대답했다. “응, 추진회에 있어. 그리고 다씨와 엘리도.”

남학생들과 함께 있으면 수줍음을 타는 엘리는 사물함 속으로 기어들어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다씨는 칼랩을 보며 환하고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세 명이 공동 의장이야.” 다씨가 말했다. “우리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내려는 중이야.”

“글쎄, 우리도 멋진 생각들을 내보려고 하고 있어!” 칼랩이 다씨에게 말했다.

“나도.” 론이 거들었다. “축구팀 애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학교를 하루 쉰다는 건 정말 멋지잖아.”

“우리는 너희 세 명만 믿어, 스테파니.” “너희들이 7학년과 8학년에게 이길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거라고 믿어.” 스테파니는 숨을 고르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려고 애를 썼다. “오, 우리만 믿어, 조쉬.”

스테파니가 조쉬의 아주 길고 살짝 말린 속눈썹에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우리에게 아주 멋진 계획들이 있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조쉬가 말했다.

“진짜야,” 스테파니가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우리가 전교생중 가장 많은 기금을 모을 거야, 확실해.”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켈랩이 말했다. “만약 6학년이 진다면 누구 탓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

세명의 소년은 웃어대더니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지나갔다.

“정말 도움이 안 돼!” 스테파니가 말했다. “개네들은 쉬는 날을 정말 얻어내고 싶어 하면서 왜 추진회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야?”



“스테파니,” 앨리가 불렀다. “볼래? 지금 우리는 소풍날을 따내야해 아  
님 학교에 모든 애들이 우리를 그런 거 하나 못한다고 그럴 거야.”

“앨리가 옳아, 스테파.” 다씨가 말했다. “너와 너의 아이디어 없이는 이  
기지 못 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회의에 꼭 와야 해.”

“네 말이 맞아.” 스테파니가 말했다. “하지만 베키 숙모를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아이가 아니란 걸 어떻게 보여주지?”



## CHAPTER

### 5

다음날 화요일 아침, 스테파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를 입으며 상쾌한 기분을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스테파니의 라벤더색의 티셔츠와 그에 맞는 미니 커트와 카우보이 부츠마저도 스테파니의 기분을 전환시키지 못 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고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는 심통을 부리며 아래층으로 내려와서는 부엌으로 갔다. 다른 가족들이 아침식사를 하며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걸 보았다.

디제이가 분주하게 가족모두에게 불어연습을 하고 있었다. “J'en voudrais encore (내 사랑은 어디에).” 라고하며 식탁 위 큰 접시에 있는 와플을 집어먹었다.

“나도 혀 꼬임 표현들을 좀 알고 있어.” 미셀이 입에 오트밀을 가득물고 말했다. “루버 베이비 버기 범퍼. 러거 부비 뱀비 부퍼스. 맞지?”

“귀엽구나, 미셀.” 데니가 미셀에게 말했다. “오늘만은 바닥에 오트밀을 흘리지 않도록 신경 좀 써줄래? 바로 어젯밤에 내가 다 닦아내고 왁스칠도 했던 말이야. 정말이야. 쉽지 않은 일이라고. 괴상한 빨강, 노랑, 보라, 그리고 초록색의 난알 알맹이들이 바닥타일에까지 있었다구!”

스테파니는 토스티오즈가 떠올랐고 애써 니키와 알렉스를 보지 않으려 했다. 쌍둥이들은 양옆으로 붙어있는 높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그릇에 잘게 썰어진 바나나를 부지런히 으깨면서 걸죽한 바나나 죽을 만들고 있었다. 베키는 이 엉망이 된 부엌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끝까지 오는 플라스틱 앞치마를 입고 샤워용 모자를 쓰고 쌍둥이들에게 아침을 먹이려 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아빠 데니가 말을 계속했다. “이번 달 나의 최신 가전제품이 어제 도착했어, 들어봐, 이건 멋진 발명품이야. 특이한 점은, 이게 회전하는 바닥 청소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요 깜찍한 게 이 요상하고 작은 알맹이들을 없애버리자!” 난 비키를 불러서 지난밤에 모든 일을 말했다. 비키는 아주 큰 관심을 보였다.

비키는 시카고에서 왔고 데니의 약혼자다. 이 둘은 베키 숙모가 출산휴가 중일 때 비키가 샌프란시스코의 계몽의 공동 주체자로서 숙모 대신 일

을 해 줄때 만났다. 지금 비키는 시카고로 돌아갔고, 테니와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하고 있다.

뒷문이 열렸고 키미 기블러가 들어왔다.

“Bonjour (안녕하세요), 키미.” 디제이가 말했다. “Petit dejeuner (아침식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디제이.” 키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만약 내가 아침을 아직 안 먹었냐는 거라면 대답은 예스야. 아님 아침을 또 먹었냐고 물었다고 해도 대답은 같아” 키미가 의자를 당겨서 식탁에 앉고는 음식 접시에 있는 와플하나를 집어 먹으려했다.

엘비스의 유명한 노래 “Little Sister.” 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제시는 계단을 내려갔고 부엌 가운데서 멋진 포즈를 취했다. “여러분 이 의상 어때요?”

코메트는 좋았는지 짚어냈고 모두들 제시 쪽을 향해 어리둥절한 눈을 하고 있었다. 제시는 뺨질뺨질하고, 반짝이 장식이 붙어있는 하얀 셔츠, 두꺼운 금 허리띠 고리, 술 장식의 바지, 그리고 부츠, 완벽한 엘비스의 의상을 입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귀여웠던 머리스타일도 무쓰로 엘비스처럼 높고 그럴싸하게 올렸다.

“끝내주는데, 제시.” 식탁 끝에 있던 조이가 말했다. “그런데 할로윈 의상으로 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지 않니?”

“정말 재밌네, 조에.” 제시가 대답했다. 제시가 거울 앞에 멈춰 서고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번들거리는 머리 꼭대기를 쓰다듬었다. “할로윈 사탕을 받으려고 준비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밴드가 다음 주에 할 추억의 엘비스 쇼를 위해 하루 종일 총연습 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딱 맞는 의상이 진정한 음악의 세계에 빠져드는데 도움이 될 거야.”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웃어보였다. “이 의상으로 난 락앤롤 왕 엘비스와 쌍둥이가 된 거라고.”

“쌍둥이 얘기가 나온 김에, 나 좀 도와줄래? 이 꼬맹이들 때문에 말이야.” 베키가 제시에게 물었다. “애네 아마 끝까지 먹을걸요, 전 스튜디오로 가 봐야 해요.”

제시가 음식으로 엉망이 된 쌍둥이들의 손과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저지분한 새앙쥐들을 먹이라구?” 제시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이 옷을 더럽힐지도 모르는데?”

베키는 앞치마를 풀고 샤워 모자를 벗었다. 속에는 리넨옷을 입고 있었다. “자 여기.” 베키 숙모가 말했다. 숙모는 그 모자와 앞치마를 제시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거 빌려줄게.”

제시가 한 숨을 쉬고는 천천히 보호 장치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앞치마나 입어야겠다.” 제시가 터프하게 말했다. “이 멋진 머리에 샤워모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

베키가 웃으면서 순간 제시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그리고는 뒷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어머!” 베키 숙모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구나. 스테파니 저기 있잖니, 오늘 쌍둥이들을 오후에 밖에 데리고 나가도 좋겠구나, 감기도 다 나왔거든. 그러니 바람을 쐬도 좋을 거야.”

스테파니는 말없이 우울하게 계란을 푹푹 찌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올렸다. “니키와 알렉스를 오늘 오후 밖에 데리고 나갔다오라고요?” 스테파니가 물었다.

데니가 당황한 듯 보였다. “여기 무슨 메아리소리라도 있나?” 데니가 말했다. “베키가 당신에게 방금 말 한 거 아니예요 여보?”

“데자부,” 디.제이가 말했다.

“Gesundheit (건강해).” 키미가 대답했다.

“패터 피퍼 팩트 어 픽 오브 페플드 피퍼스!” 미셀이 혀 꼬임 노래를 시작했다.

“이크!” 제시가 쌍둥이에게서 물러나며 소리 질렀다. “바나나를 먹으랬지 누가 머리에 뒤 집어 쓰랬니!”

베키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려다 멈췄다. 그리고는 길고 어두운 색 머리를 빗었다.

“그래 스테프.” 베키가 지갑을 들면서 말했다. “쌍둥이들을 윗동네에 어린이 놀이터에 데리고 가렴. 그 놀이터는 고리가 연결된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다른 데로 가지 못 할 거야.”

데니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 놀이터를 잘 알지.” 데니가 말했다. “내가 너 두 살 때 거기에 데리고 다녔단다. 지금은 다 커서 책임감 있는 애 돌보기 일을 하고 있네! 세월 참 빠르구나.” 데니는 손목시계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사실,” 데니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지 몰랐

네. 베키 서둘러요. 오늘 아침은 스튜디오에 늦겠어요.”

베키와 데니가 모두에게 뽀뽀를 하고는 출근 했다. 몇 분 후, 스테파니는 책을 챙겨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걸어가면서 스테파니는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다. 스테파니는 자기의 노래가 미셸의 “백 마리의 꿈틀거리는 지렁이” 처럼 괴상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스테파니는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는 기분이 좋았다. 이상하게도, 스테파니의 안 좋았던 기분이 사라졌다. 아침 먹을 때 베키 숙모가 한 말이 스테파니에게는 계획에 대한 힌트가 되었다. 지금 스테파니에게 계획하나가 생긴 것이다.

그날 오후 베키 숙모가 영화 편집 강의를 들으러 가자마자, 스테파니는 계획을 행동에 옮겼다. 문이 닫히는 순간 스테파니는 쌍둥이들의 자그마한 모자와 재킷 재빠르게 챙겼다.

“됐다 애들아.” 스테파니가 쌍둥이들에게 말했다. “우리 밖으로 나가자.”

“바쁘로!” 니키가 외쳤다. “노리터!”

“그래, 사실 놀이터는 아니지만.” 스테파니가 말했다. “뭐니 뭐니 해도 너희들의 소중한 인생을 유지한 놀이터에서 보내서야 되겠니? 그렇지? 누나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 볼까?”

“하쵸!” 알렉스가 외쳤다. “가자 하쵸!”

“가자 하쵸!” 니키가 따라했다.

“가 볼래? 애들도 좋아하네!” 스테파니가 중얼거렸다. “교육적인 경험일 거야, 어쨌든 베키가 오늘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했어.” 스테파니는 약간 찢리기는 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스테파니는 베키가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 스테파니는 그 계획을 수행하려고 결심을 했다.

스테파니는 애네들과 씨름하며 모자와 재킷을 입히고 쌍둥이용 유모차에 태웠다. 그리고는 집을 나와 거의 뛰다시피 갔다. 오래 걸어야 아니 거의 뛰어서 가야했고 스테파니는 학교 도서관에 도착을 했다.

스테파니는 여서 일곱 명 정도가 다 함께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도 다들 내 레몬 양귀비씨 케이크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카라

랜드포드가 투덜거렸다. “난 너희들이 왜 빵 팔기를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

“세차는 왜 안 하는 거니?” 크리스토퍼 리플이 물었다. “단지 7학년 들이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성금을 부탁 하는 건 어떨까?” 리지에 티몬스가 제안했다.

“이건 어떠냐.” 다른 남자 아이가 끼어들었다. “지금 우리 다 집으로 해산 하는 건 어때? 아무런 계획도 없잖아. 우리 위원회는 완전히 난장판이야.”

“디토!” 누군가가 불렀다.

교실 뒤쪽에 앉아있던 엘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곧 바로 카라는 스테파니가 문가에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오오오!” 카라는 놀란 소리를 했다. “애네 들이 그 쌍둥이 꼬마 사촌들이니? 너무 깜찍하지 않니? 같이 놀아도 되지?”

“아마 될 거야.” 스테파니가 확실치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런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카라는 교실을 급히 가로질러가서는 니키와 알렉스를 유모차 밖으로 꺼냈다. 크리스토퍼 리플이 카라를 따라 갔다.

“난 어린애들이 너무 좋아.”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크리스토퍼는 자기 불을 부풀려서 영구 같은 얼굴을 알렉스에게 보였다.

아장아장 걷는 알렉스가 이것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또!” 알렉스가 외쳤다. “또 얼굴!”

“오, 저것보다 더 재미있는 걸로 보여줄게.” 크리스가 말했다. 크리스는 손과 무릎을 바닥에 두고 혀를 내밀었다. “어흥!” 크리스가 소리 냈다. “멍멍!! 난 멍멍이, 그치?”

알렉스가 오더니 머리를 두들겼다. “멍멍이!” 알렉스가 신이 나서 말했다. “멍멍!”

크리스는 아주 폭 빠져 있었다. “애들아!” 하고 외쳤다. “난 이것도 잘해, 난 어릿광대.”

한편 카라는 니키를 의자에 앉혀놓고는 학교 놀이를 했다. “아주 작은 거미.” 카라가 꿈틀거리는 손동작을 하자 니키는 신이 나서 환성을 질렀다.

“이거 정말로 재밌다.” 카라가 말했다. “이 꼬마 천사들이랑 게임하며 노는 게 정말 좋네.”

“그래 좋아.” 다시오도 말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기금모음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

스테파니가 손 벽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거야!”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는 스테파니를 쳐다보았다.

“그게 뭘데, 스테파?” 엘리가 물었다.

“좋은 생각! 우리 프로젝트를 위한거야. 우리가 카니발을 여는 거야. 작은 꼬마들 모두를 위해서!”

“와우, 스테파니.” 다시오가 말했다. “아주 멋진 계획 같아. 근데 어떻게 하면 되니?”

스테파니가 열정에 찬 모습으로 다가와서는 앉았다. 스테파니는 연필과 종이를 꺼내더니 공책에 마구 쓰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스테파니가 시작했다. “너희들 부모님들이 우리랑 같은 날 도서관 기금을 마련하신다는 거 다 알지?”

“그래.” 다시오가 대답했다. “부모님들은 체육관에서 경매 비슷한 걸 하신댔어.” “그래 맞아.” 스테파니가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 축제를 놀이터에서 하는 건 어때? 학교 안에서는 부모님들이 경매 때문에 바쁘실 동안에, 우리는 밖에서 애들 돌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에게 그 비용을 받는 거야 기꺼이 내주실 거야.”

“멋지다!” 크리스가 말했다. “내가 어릿광대역할을 할까?”

“당근이지.” 스테파니가 말했다. 스테파니는 종이에다 그 의견을 적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음, 음식도 좋지.” 카라가 말했다. “그건 내가 맡을게. 가져 올만 한 게 있 거야--”

“레몬 양귀비씨 케익.” 다시오가 말했다.

“카라, 그런데 초콜렛 칩 쿠키도 좋을 것 같아. 레몬에이드나 아니면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말이야.”

“얼굴에 그림을 그려 주는 건 어때?” 리지에가 의견을 내놓았다. “어렸을 때 항상 재미있어 했었거든. 그리고 혹시 그림그리기와 만들기 용 테이블은 어때니?”

“좋아!” 스테파니가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말했다.

“놀이터에 장애물 넘기도 있어.” 다른 남자아이가 말했다. “장애물 넘기 게임을 하는 거야.”

“오리 거위놀이!” 누군가가 말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짝을 지어 걸어가는 거야 애들이 바퀴를 돌리면서 갈 때 지목자가 걸어가는 애들의 번호를 맞추면 케이크를 받는 거지. 유아용 농구 골대를 달아서 공을 넣게 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애들이 칸막이 뒤에서 낚시를 하듯 작은 선물을 낚는 미니 낚시터도 좋겠다.”

“플라스틱 볼링도 있어!”

“대단한데!” 스테파니가 늘어나는 목록들을 적으면서 외쳤다.

곧 6학년 위원회 아이들은 아주 빠르게 의견들을 내놓았다. 스테파니는 애들이 말하는 의견들을 하나씩 모두 적어 놓았다. 마침내 한 시간 반 동안 소란스럽게 얘기를 하고 나서야 교실은 조용해졌다.

스테파니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와우!” 스테파니가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보자. 너희들 음식 재료 나 미술 도구 그리고 스포츠 용품이랑 게임도구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할지 알고 있지, 그렇지?”

“알아!” 모두가 대답했다.

“그래 각자가 적어도 우리 반 애들 2명에게 시설 설치, 음식 만들기, 축제 운영 그리고 초대장 판매 같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

“멋져.” 스테파니가 말했다. “우리 18명 모두가 해낸 거야. 또 다른 의견 있니?”

스테파니가 카라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찌지 카라.” 스테파니가 느리게 대답했다. “여하튼 난 숙모와 삼촌이 허락을 안 하실 거라고 봐. 그래도 어쨌든 의견은 고마워.”

“뭘.” 카라가 대답했다.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내다니 스테파 믿겨지지 않아.” 다씨가 말했다. “8학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선배들이 세워놓은 아이디어가 뭔지도는 소문 없니? 어떤 건지 누구 아는 사람 없어?”



“내가 계속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야.” 앨리가 말했다. “내가 복도에서 8학년생들이 모여서 속삭이는 걸 보고는 그들 뒤에 숨어서 훑쳐보는데 내가 있다는 걸 눈치 챈 것 같았어!”

“개네들은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린 모양이야.” 크리스가 말했다. “아마도 우주 외계인이 되서 나타나야겠는걸!” 스테파니가 농담을 했다. 애들이 다 같이 웃었다.

“너희는 선배들이 왜 계획을 큰일처럼 비밀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 다 씨가 말했다.

“제니는 아마도 우리가 자기네 생각을 훑히려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스테파니가 말했다. “정말 바보 같아! 우리가 그것 밖에 안 되는 줄 안다니까.”

“누가 자기네 아이디어를 쓰거나 한데?” 앨리가 말했다. “우린 이미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맞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기 돌봐주기 축제는 최고의 계획이야”

“회장으로서 말이야.” “너희들 말에 동의해.” 스테파니가 점잖게 말하고는 도서관 주의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섰다. “아기 돌보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스테파니가 놀라며 큰소리로 말했다. “니키랑 알렉스가 없네?”

“쌍둥이들이 저기 전기문 책 코너 뒤에 있어.” 크리스가 말했다. “잘 놀고 있어. 애내들 그냥...오 저런.”

스테파니가 벌떡 일어서서 테이블 옆에 책장 쪽으로 재빨리 갔다. 니키와 알렉스는 바닥 한 가운데 앉아 즐겁게 두 권의 두꺼운 조지 워싱턴의 전기문을 찢고 있었다.

“오, 이럴 수가!” 스테파니가 외쳤다. “안 돼. 책들을 찍으면 어떡해, 요놈들아!” 스테파니는 그 책을 빼앗아서 자기의 책가방에 넣었다. “사서 선생님이 오셔서 이 상황을 보실 수 있도록 기다리자!” 스테파니가 혼자 중얼거렸다. “나 사서 선생님이 아빠께 내가 쌍둥이들을 잘 보지 못했다고 연락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

쌍둥이들이 일을 더 만들기 전에, 스테파니는 그들을 안아 올려서 유모차에 태웠다. 그리고는 애들한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야. 다음 주에도

오늘이랑 같은 시간에 여기서 회의가 있어.” 라고 말했다.

스테파니는 자기 시계를 흘끗 보고 깜짝 놀랐다. 스테파니는 베키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쌍둥이들을 데리고 정확히 19분 안에 집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다.



## CHAPTER

### 6

숨을 헐떡이며 스테파니는 17분 만에 집에 도착했다. 스테파니는 베키가 앞문으로 들어가자 바로 쌍둥이의 모자와 자켓을 벗겼다.

“알렉스!” 베키가 쌍둥이들을 안아주며 반가워했다.

“니키! 엄마다!”

베키가 자켓을 벗어서 옷장에 걸었다. “오늘 쌍둥이들과 한 바깥 외출은 어땠니?”

“아,” 스테파니가 대답했다. “오, 재밌었어요.”

“가자!” 니키가 외쳤다. “밖에!”

“하쵸!” 알렉스가 장단을 맞췄다. “하쵸! 책 빠! 책 빠!”

베키가 애들을 보며 웃었다. “스테파, 알렉스가 책을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했는지 들었니? 오늘 쌍둥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던 모양이구나. 정말 멋진 베이비씨터로 거듭나고 있네!”

스테파니는 볼이 발그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책도 좀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죠.” 스테파니가 중얼 거렸다. 이거 참 골치 아프네, 스테파니는 생각했다.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을 사실 대로 말하는 순간 난 끝장이야!

“알렉스가 아주 신나하며 말하고 있는 ‘하쵸’가 뭘 가리키는 것 같니?” 베키가 계속 말했다. “네가 읽어준 책 이런 이름이라도 나온 거니?”

스테파니는 알렉스가 학교를 말하고 있음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론 자기가 쌍둥이들을 데리고 나갔다왔던 일은 말할 수가 없었다. 스테파니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스테파니가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녁식사에서 스테파니는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하는 자신에 대해 더 창피함을 느꼈다. 베키는 스테파니의 아기돌보기 실력을 한참 칭찬했고 스테파니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스테파니는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했어” 베키가 열심히 얘기했다. “쌍둥이들한테 책도 읽어줬지 뭐야. 알렉스랑 니키가 오늘 일을 말해 준다고 정신이 없지 뭐야!”

“우리 어린 딸이 정말로 책임감 있는 어른이 다 됐네.” 데니가 자랑스

러워하며 말했다.

“잘했어” 제시가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한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우리 쌍둥이와의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을 거야!”

“훌륭해!” 디.제이가 말했다.

“살라살라.” 키미가 웅얼웅얼 거렸다. 언제나, 키미는 자기 편한 저녁 시간에 집에 우연히 들리곤 한다. 키미의 입은 으깨진 감자로 가득 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기 힘들었다.

스테파니는 가족들이 하는 말들을 차마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스테파니는 가족들에게 6학년의 계획을 위해 자기가 생각해낸 멋진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진실전체를 밝히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스테파니는 의자를 식탁에서 밖으로 빼 일어나서 “모두들 칭찬 고마워요.” “그런데 애들 돌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 었어요.” 라고 재빨리 말했다. “이만 일어날게요. 오늘 밤에 해야 할 숙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제방에 있을 테니 필요하면 부르세요.”

다음날 학교에서, 6학년 위원회의 애들이 자기네가 생각해낸 카니발 아이디어 얘기로 여전히 떠들썩했다.

쌍둥이들은 아주 정신없어했고 스테파니는 자기가 베키 숙모를 속인 일을 어느새 잊고 있었다.

스테파니는 점심시간에 엘리와 다씨를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만나 기분이 좀 나아졌다.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니?” 엘리가 말했다. “크리스토퍼 리플이 축구팀 론이랑 친하다는 거야. 그래서 론이 우리 카니발 얘기를 축구팀 애들한테 했데.” 엘리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스테파니가 재촉했다. “그래서 뭔데?”

“다들 좋다고 했데.”

“반가운 소식이네.” 다씨가 조심스레 말했다.

동시에 이들은 근처 테이블에서 큰소리로 웃어 대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려 제니 모리스, 다이아나 링크, 그리고 몇몇의 다른 8학년 플라

밍고선배들이 자기네를 쳐다보고 있는걸 알았다. 다른 언니들은 마치 세 상에서 제일 비밀스런 얘기를 아는 것 마냥 킬킬 데고 있었다.

제니가 스테파니를 바라보았고 친구들은 제니를 쳐다보고는 히죽 웃었다. 잠시 후 제니는 고개를 돌려 다른 플라밍고 친구들에게 컷속말을 했다. 이들은 모두 스테파니의 테이블을 보고는 배꼽이 빠질 듯이 웃어댔다.

“저 언니들 너무 알미워.” 스테파니가 화가 나서 말했다. “뭐가 자기네 끼리만 저렇게 재밌는 거야?”

“난 8학년들이 아주 놀랄만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어.” 다씨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분명히 아주 좋은 계획일거야. 다른 학년은 상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거든.”

“우리 카니발 보다 멋지다니?” 엘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다씨가 말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과연 뭘까?” 스테파니가 궁금해 했다.

“뭐 길래 그렇게 잘난 척이야?”

애들이 식판을 설거지 창으로 옮기는 동안 조쉬 힐맨 과 켈랩 파커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녕, 공동 의장.” 조쉬가 말했다. 스테파니를 보며 미소 지었고 스테파니는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스테파니도 조쉬를 보고 웃었다.

“너희가 우리 학년 프로젝트를 위해 계획을 내놓았다고 들었어.” 켈랩이 말했다.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니?”

“우린 반드시 잘 할 수 있을 거야!” 스테파니가 쏘아붙였다. “만약 모든 6학년 애들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문제없어, 결국, 이건 6학년 전체를 위한 프로젝트거든!”

“글쎄, 우리도 이 일이 잘 됐으면 해.” 조쉬가 스테파니에게 말했다. “소풍가는 상품을 고대하고 있거든.”

“야, 카니발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보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스테파나가 남자 애들에게 말했다. “축구공을 가져와서 꼬마 애들이랑 놀 수도 있어.”

조쉬와 켈랩이 한 말에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를 몰랐고 왜 애들이

자기에게 부담을 주는지 생각하며 걸어갔다.

남은 주 동안 학교에서 스테파니와 다씨 그리고 앨리는 제니와 다이아나의 계속되는 킬킬거림과 뒤에서 해대는 귓속말을 상대해야 했다. 이들은 조쉬와 캘럽 그리고 론에게서 몇 개의 소문을 더 들었다. 이 6학년 남자애들은 자기학년이 기금마련에서 1등을 못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말을 퍼트리고 다니기만 했지 카니발을 돕겠다는 말은 없었다.

다가오는 화요일 오후, 스테파니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스테파니가 계획을 한 번 더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베키가 영화편집수업 때문에 집을 나선 순간 스테파니는 쌍둥이들을 유모차에 다시 태워서 학교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카니발이 오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안녕.” 스테파니가 니키와 알렉스를 내려놓느라 정신이 없을 때 다씨가 말했다. “우리 방금 시작했어.”

“좋아.” 스테파니가 숨차하며 말했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을 들어보자, 크리스?”

“음, 난 나랑 함께 어릿광대를 할 친구들을 알아봤어. 그리고 보니 테일러네 엄마가 그러시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부티크에서 헬륨 풍선을 팔라고 공짜로 주신데.”

“멋지다!” 스테파니가 긴 계획서를 하나씩을 확인하며 말했다. “카라는?”

“난 쿠키를 만들고 몇몇 애들은 집에서 비스킷, 케이크, 파이를 만들어 오겠데. 게네 엄마. 아빠들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주신다고 하셨거든.”

“좋았어! 리지에 넌?”

“난 할아버지가 할인점을 운영하시는 헤리 라몬트에게 말해줬어.” 리지가 말했다. “이미 페인트랑 폴, 판지를 통째로 주셨고 차에 다 실어놨어. 진행이 잘되고 있어-”

앨리가 교실로 뛰어 들어오자 리지가 말을 하다 멈췄다. “알아냈어!” 앨리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8학년들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말이야!”

앨리는 의자 쪽으로 자기 몸을 던지곤 숨을 가다듬었다. 나머지 애들 모두가 앨리한테로 달려들어서 에워쌌다.

“진짜?” 카라가 물었다. “그게 뭔데?”

“오, 정말.” 엘리가 말했다.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걸.”

“엘리! 얘기 해봐!” 스테파니가 원했다. “지금 좀 알려줘!”

“8학년들은 진짜 영화배우를 섭외해서 기금마련을 할거래. 그 배우들과 사진을 찍게 하고는 돈을 받는데!”

“영화배우라고?” 다씨가 다시 되물었다. “누구래?”

“다라딘!” 엘리가 말했다. “믿겨지니?”

“다라딘!” 스테파니가 울상을 하며 말했다. “정말.....진짜로.....유명하고 예쁜 배우데!”

“그래!” 리지에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포기 하는 게 좋겠어. 가망이 없어. 난 추진회에서 빠질래.”

“안돼!” 다씨가 리지에에게 말했다.

“왜 안 되는데?” 리지에가 말대꾸를 했다. “기억해---난 이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야!”

“아무래도 다른 계획을 생각해 내는 게 좋겠어.” 누군가가 제안했다.

“그러기엔 늦은 거 아니니?” 다른 아이가 말했다. “난 이미 이 카니발을 준비하려고 많은 것을 했던 말이야.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진 않아.”

“얘들아, 이 날짜 찍는 도장이 멋진 문신이 될 것 같아.” 한 남자 아이가 사서 선생님 책상 뒤에서 말했다. “우리 이마에 한번 이 도장을 찍어 보자.”

“좋아.” 다른 남자아이가 대답했다. “그러면 2095년도로 만들어보자!”

스테파니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스테파니는 자기 의자에 쿡 하고 앉고는 그동안 더 우울해진 느낌이였다. 스테파니가 쳐다보았을 때, 위원회 전체는 스테파니가 보는 앞에서 난장판이 돼가고 있었다. 스테파니의 멋진 카니발 계획은 산산이 부서진 것이다!

“여기 교사 휴게실에 마실게 있는지 보자.” 크리스토퍼가 제안했다. “가끔 발로 이걸 차면 잔돈 나오는 데서 돈이 나올 때가 있어.”

“해보자!” 다른 남학생이 말했다. 일어서서는 크리스를 따라 교실 밖으로 나갔다.

“잠깐!” 카라 랜드포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힘껏 소리쳤다.

“나 의견이 있어!”

“재 아마도 자기가 만든 레몬 양귀비씨 케이크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팔자고 할 거야.” 다씨가 스테파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카라가 다씨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다씨.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 아닌 걸. 내 계획은 의장인 스테파니랑 관련 된 거야.” 카라는 의자에서 내려와 스테파니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스테파니, 너 항상 너희 아빠가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자랑하잖아. 너의 아빠께서 유명한 사람을 카니발에 데려오시게 할 수 없니?” 스테파니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난 내가 우리 아빠에 대해서 자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카라---” 스테파니가 말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카라가 끼어들었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왜 너의 아빠는 다라 디엔 같은 유명한 스타를 못 데려 오시란 말이야?”

“음, 우리 아빠 자기 쇼에 나오는 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 거야.” 스테파니가 말했다. “그리고 보통 잠깐만 머무르다 가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아빠가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의 도마뱀 전문가를 인터뷰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랑은 돈을 내면서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을 거야.”

카라가 스테파니에게로 좀 더 다가갔다. “그래도 너희 아빠 유명한 사람들을 몇몇 알고 계실거야, 그렇지 않겠니?” 카라가 말했다.

“어, 그럴 거야.” 스테파니는 점점 당황해하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한 명 정도만 아빠에게 부탁해 보는 건 어때?”

그때, 다른 몇몇 아이들이 둘의 얘기에 끼어들었다. “그래, 스테파니 한번 부탁해봐” 그들이 물었다. “시도만이라도 해봐, 너도 학교 소풍날을 따내고 싶잖니?”

이번 압력은 스테파니를 정말로 절망적이게 만들었다. 갑자기 스테파니가 불쑥 뭔가를 말했다. “난 다른 생각이 있어!” 스테파니가 큰소리로 말했다. “더 좋은 계획. 진짜 락 밴드를 데려 오는 거야!” 스테파니는 영클 제시를 생각했고 그가 이 부탁을 들어주기를 기도했다. 만약 들어준다면, 스테파니는 제시의 남은 인생에 충성하는 부하가 되기로 마음먹기로 했다.

“락밴드라고?” 카라가 물었다. “너 락스타들 아니?”

“글쎄, 그냥 내 삼촌이야. 그런데 전문적인 음악가야.” 스테파니가 설명했다. “그래서 삼촌 밴드는 정말 멋지다고.”



“신청곡도 연주하니?” 크리스가 물었다.

“응.” 스테파니가 말했다. “특히 엘비스 나 비치 보이즈 노래를 잘하셔.”

“모두가 춤을 출 수 있겠네.” 앨리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이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야. 정말 멋진 계획이야. 스테프.”

“그래 맞아.” 다씨도 말했다.

흥분해 있는 아이들이 잠시 잠잠해진 후, 다씨가 계속 했다. “나 역시 일을 시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내에 끝내지 못 할 거야. 리지에, 너 부쓰랑 받침대 등을 만들 미술 준비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

“그래.” 리지에가 말했다. “이 강당 바로 밖에 있어. 그것을 체육관으로 운반해서 일을 시작하자.”

몇몇 아이들이 문밖으로 리지에를 따라 나갔다. 곧 이들은 페인트 통, 페인트 붓, 그리고 카드보드지들을 강당에서 체육관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알렉스가 스테파니 쪽으로 오고 있을 때 스테파니는 종이를 들어 올리고 계획 목록들을 보고 있었다.

“페인트!” 알렉스가 말했다. “페인트!”

“오, 안 돼!” 스테파니가 알렉스를 쳐다보면서 외쳤다. 아무튼, 아무도 모르게 알렉스는 누군가의 펠트팁 하이라이터를 손에 쥐었다. 지금 이 꼬마의 손과 얼굴은 연분홍 잉크 얼룩으로 뒤 덮였다.

“화장실로 가서 좀 씻어야겠다. 가자.”

스테파니는 알렉스를 한 손으로 잡고 교실 밖으로 데려갔다. “말해봐 다씨, 앨리.” 스테파니가 자기의 어깨 너머로 말했다. “애 좀 씻기는 동안 니키 좀 봐 줄래?”

“걱정마!” 다씨가 활기차게 말했다. “우리가 니키랑 체육관으로 같이 갈게 거기서 보자.”

앨리가 일어섰다. “니키, 가자!” 앨리가 말했다.

대답이 없었다. 스테파니가 입구에 멈춰 섰다. “니키?” 스테파니가 불렀다. “숨지 말고 나와라.”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스테파니는 주위를 돌아보고는 다시 교실로 들어왔다. “어디 있는 거냐니까, 니키?” 스테파니가 다급해지기 시작하면서 외쳤다. 몇 걸음 걸은 후 위인전기 코너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알렉스, 니키가 어디 있는지 아니?”

알렉스는 어리둥절해 보였고 고개를 모른다면 흔들었다.

“니키는 이쪽에도 없어.” 다씨가 미스터리 책 코너 뒤쪽을 확인해보면서 말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야.” 엘리가 그림책 코너에서 알려주었다.

“책상 밑에도 없는 걸.” 다씨가 손과 무릎을 바닥에 टे어 굽어보며 말했다.

“문 뒤도 사서 선생님 책상에도 없어.” 엘리가 말했다.

“여기 어항 쪽에도 없어.” 다씨가 말했다.

“그럼 애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스테파니가 물었다. 스테파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스테파니는 재빠르게 애들 모두가 이미 둘러봤던 도서관 주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면서 뛰어다녔다. 스테파니의 배는 점점 죄어왔다. 그때 스테파니는 구석구석 살살이 뒤져보다 멈춰서 걱정을 했다.

엘리는 사서 선생님의 사물함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그리고 교실로 걸어와서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스테파니.”

“맞아.” 다씨가 반대편에서 대답을 했다.

스테파니가 친구들을 바라보고는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을 털어버렸다.

그런 것 같아, 스테파니는 혼잣말을 했다. 이 상황을 직시해야해. 니키가 사라졌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 CHAPTER

### 7

“중요한건,” 스테파니가 말했다. “침착.” 스테파니는 두 손을 비틀면서 입술을 물었다.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스테파니는 목청이 터지도록 외쳤다. “우린 지금 니키를 반드시 찾아야해!”

엘리는 서둘러 가서 스테파니의 어깨를 다독겨려주었다. “진정해, 스테프.” 엘리가 다정히 말했다. “그래도 니키는 겨우 두 살이야. 가봤자 얼마나 갓졌니?”

스테파니는 집에서 쌍둥이들이 다녔던 장소들을 생각했다. “아마 너희들 놀랄 지도 몰라.” 스테파니가 말했다.

“맞아, 니키는 그리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그랬다면 우리 중 한명이 알아챘을 거야.” 엘리가 말했다.

스테파니는 감정을 억누르려 침을 꿀꺽 삼켰다. 스테파니는 자기가 30분 동안이나 쌍둥이들에게 조금도 관심을 안 뒀다는 것을 깨달았다. 쌍둥이들의 사촌이자 베이비씨터인 내가 애네들을 잘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누구에게 쌍둥이들을 계속 지켜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스테파니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건 말이지.” 엘리가 말하고 있었다. “체육관에서 다른 아이들을 불러내서 주변으로 흩어진 다음 니키를 꼼꼼하게 찾아보는 거야.” 스테파니는 애들과 함께 열심히 찾았다. “좋아.” 스테파니가 말했다. “시작해보자.”

스테파니는 알렉스를 세워서 등에 업었다. “넌 누나랑 붙어 있어야해!” 스테파니가 알렉스에게 말했다. “니키처럼 너까지 없어지면 안 돼.”

“없다.” 알렉스가 활기차게 따라했다. “니키 없다.”

스테파니, 엘리, 다씨 셋은 강당 밖으로 나갔다. “엘리와 나는 다른 애들을 데리고 갈게.” 다씨가 체육관 쪽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우리중 반은 식당과 강당을 맡을게. 나머지는 교사 휴게실과 사물함이 있는 쪽으로 가봐. 너와 알렉스는 그밖에 다른 곳을 둘러봐 스테프.”

“그럼 교실은 어찌지?” 스테파니가 말했다. 스테파니는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나서 멍한 눈물을 참아 내려했다. “이 바깥문은 어찌지?” 스테파

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 건물 밖으로 나갔으면 어떡해?”

다씨는 친구들이 우울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시작하는 게 어때.” 다씨가 급히 말했다. “빨리.” 다씨와 엘리는 서둘러 강당을 내려갔다.

알렉스는 즐거웠는지 스테파니의 긴 머리를 껌 잡아당겼고, 스테파니는 애들과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다씨와 엘리는 그들이 지나가는 교실마다 멈춰 섰다. 다행히도, 문 몇 개가 잠겨 있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몇 개의 교실은 청소당번들 때문에 열린 채 있었다.

스테파니는 계속 모든 곳에 가볼 것을 요구했다. 스테파니는 알렉스를 업고 모든 선생님들의 책상 밑과 지도 선반과 미술 책상 뒤까지 둘러보았다. 스테파니는 심지어 준비물들이 넘쳐나는 캐비닛이나 책꽂이 뒤 등니키가 숨지 못할 만한 장소들도 찾아보았다.

“니키!” 스테파니는 자기가 니키를 보고 있는 것처럼 불렀다. “니키! 너 숨어 있지! 얼른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내 말 들리지?”

하지만 니키의 작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길고 정신없었던 수색은 단지 몇 개의 장소로 좁혀졌다. 스테파니가 강당 쪽에 다 달았을 때 스테파니는 아주 불안함과 자책감을 느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스테파니는 자신에게 물었다. “애들을 학교에 데려온 게 잘못이야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학교에 와서는 돌보려고도 하지도 않았어.”

스테파니는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언성이 높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내가 아는 건 니키가 오랜 시간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지금쯤 어딘가에 있을 텐데!”

베키 숙모의 화난 얼굴이 스테파니의 머릿속에 그려졌고 스테파니의 배는 더 뒤틀렸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스테파니가 다시 한 번 말했다. “니키가 혹시 다쳤거나 심지어 영원히 못 찾게 된다면 베키 숙모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스테파니가 강당 쪽으로 가서 다씨와 수색을 한 아이들 쪽으로 달려갔다. “뭐 흔적이라도 있니?” 스테파니는 희망에 차서 물었다.

“없어.” 다씨가 말했다. 다씨는 강당을 가리켰다. “하지만 학교 어딘가에 있을 거야. 확실해. 아마 의자 아래 숨어 있을지도 몰라.”

“그럼 다행이고,” 스테파니는 떨며 말했다. 스테파니는 몸이 천근만근이

된 알렉스를 다른 쪽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곤 서둘러서 강당으로 갔다.

“니키!” 한 줄로 놓인 걸상 아래를 자세히 들여 다 보면서 스테파니가 외쳤다. “지금 당장 나와라 제발!”

스테파니의 목소리가 벽에 반향이 돼서 귀로 울렸다. 하지만 니키의 대답은 없었다. 잠시 스테파니는 절망감에 사로 잡혔다. 지금 스테파니가 하고 싶었던 건 단지 한 가운데 앉아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경찰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스테파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씨에게 말했다.

“스테파니!” 크리스토퍼 리플의 소리가 빈 강당에서 울렸다. “나와!”

스테파니는 주위를 급히 둘러보고 그곳으로 재빠르게 갔다. 크리스는 남자화장실 입구에 서 있었다. “여기 좀 들여 다 볼래, 스테파니.” 크리스가 말했다. “너도 좋아할 거야.”

스테파니는 처음으로 존 뒤편 중학교 남자화장실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스테파니는 안을 들여다보고는 입이 귀에 걸렸다. 니키가 화장실 앞에 서 있었다. 니키는 즐거워하며 화장지를 변기에 한 장씩 던져 넣고 있었다. 니키가 화장실에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한참을 이렇게 놀았음을 알 수 있었다.

스테파니는 니키를 찾게 돼 너무 기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스테파니는 알렉스를 크리스에게 맡겼다. 그리고는 스테파니는 남학생 교실로 뛰어 들어가서 니키를 와락 잡고는 힘껏 껴안았다. 니키는 스테파니 어깨 너머로 마지막 휴지 한 장을 변기 안으로 던졌다.

그리고는 감정이 분출돼 스테파니는 진짜로 울기 시작했다. “오, 니키.” 스테파니는 복슬복슬한 니키의 머리에다 데고 흐느끼며 말했다.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영영 못 보는 줄 알았어! 오 니키. 찾게 되서 다행이야.”

“우러.” 니키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누나 우러.”

“잠깐만.” 크리스가 입구에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음, 스테파니? 돌아가서 애들한테 니키를 찾았다고 말하자. 그리고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 적어도 오늘 정오에는 일을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스테파니가 서 있었다. 벽에 붙어있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껍 잡아당기고는 눈물을 닦아냈다. “너희들 나 없이 오후 시간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 크리스에게 말했다. “일을 우선 시작하고 최대한 많이 해. 나는 얼른

쌍둥이들을 집에 데려다 줘야겠어.”

스테파니는 한 팔로 니키를 안았다. 그 다음 다른 팔을 뻗어서 알렉스를 안아 올렸다. 스테파니가 크리스를 따라서 도서관으로 가는 데 두 다리가 떨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스테파니가 니키와 알렉스에게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은 절대 안 할 거야.”

스테파니는 쌍둥이들의 모자와 재킷이 있는 도서관으로 서둘러 갔다. 그러고는 꼬맹이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스테파니가 집을 향해 뛰어가는데 긴장해 있었다. 뭔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 날 뻔했어. 스테파니는 자꾸 생각했다. 만약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다면 모든 게 자기 탓 이었다. 스테파니는 무관심했고 무책임했기 때문이다.

숨 쉴 틈 없이 스테파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유모차를 인도 쪽으로 몰았다. “한 가지 좋은 수가 있어.” 라고 씩씩 소리 내며 스테파니는 오르막길을 올랐다. “그리고 니키는 다치지 않았어. 무사하다구. 알렉스도 그렇고, 그러니 다행이야.”

스테파니는 애들을 유모차에서 내려놓고 현관으로 데려갔다. “어떻게 보면, 사실 아주 운 좋은 오후였어.” 문을 열면서 스테파니가 말했다.

스테파니는 거실로 가면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깜짝 놀라 숨을 멈췄다. 스테파니가 한 장면을 보자 뭔가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한 치 의심 없이 스테파니의 “행운” 의 오후는 순간 끝나 버렸다는 것이다.

## CHAPTER

### 8

베키 숙모와 제시 삼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숙모 무릎에는 티슈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숙모의 빨갛고 부어있는 눈을 보자 울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시 삼촌의 안색도 아주 안 좋아 보였다. 삼촌의 표정은 침울하고 우울해 보였다. 제시 삼촌의 오른 손에는 마치 자기의 인생이 전화 한 통화에 달려있는 듯 수화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베키 숙모는 스테파니가 쌍둥이들과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비명을 질렀다. “니키! 알렉스!” 베키는 달려가며 울었다. “아무 일 없었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베키가 말문을 열면서 다시 울기 시작했다. 숙모는 거실에서 뛰어나와 쌍둥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았다. “오, 스테파니,” 숙모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있었니?”

스테파니는 차분히 숨을 골랐다. “어....” 스테파니가 말했다. 스테파니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일찍 도착 하셨네요. 잠깐 들르신거군요. 강의가 잘못 됐나요?”

“선생님이 편찮으셨어.” 베키가 말했다. “그래서 수업이 휴강된 거야.” 베키는 쌍둥이들을 안아서 소파로 데려갔다. 베키 숙모는 앉아서 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껴안았다.

스테파니는 한시름 놓았다. 숙모의 강의가 취소 됐다고? 스테파니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내가 집에 왔을 때,” 베키가 다음 말을 계속하는 사이 두 아들을 껴안고 뽀뽀를 해주면서 말을 계속했다. “네가 없더구나 그래서 난 지난 주 처럼 놀이터에 갔을 거라 믿었어. 그래서 그 곳으로 가서 놀라게 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없더구나.”

“재도 다 알고 있어, 여보.” 제시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래서.” 베키가 말했다. “다시 집으로 왔잖아. 뒷마당도 확인하고 집 전체를 뒤졌어. 순간 겁이 났어. 네가 쪽지 한 장 없이 애들을 다른 데로 데려갈 아이가 아니잖니, 뭔가가 잘못 됐다던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 정말로 당황스러웠어.”



“그럴만 했겠지.” 제시 삼촌이 말했다. “네 숙모가 아주 당황해서 나한테 전화를 했지만, 내가 중요한 밴드 녹음을 한참 하고 있어서 나랑 연락도 안돼서 고생했어. 나중에 연락이 된 순간 집으로 서둘러 온 거야. 집에 와서 한 시간 반 동안 앉아서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알 만한 사람한테 다 연락하고 있던 참이었어.”

베키 숙모는 쌍둥이들에게 뽀뽀하다 멈추고는 쳐다보았다. “그래 어디 갔었니. 스테파니?” 숙모가 물었다.

스테파니가 천천히 자켓을 벗고는 거실 쪽으로 다가갔다. “어, 저기,” 스테파니가 말했다. “전에 말씀 드렸던 6학년 위원회 있잖아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려고 애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베키가 스테파니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저기요, 제가 의장이라서 참석을 해야 진행이 되요. 그래서 애들을 잠시 유모차에 태워서 가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 애네를 데리고 그 번잡한 시내를 걸어 학교를 갔단 말이니!” 베키가 말했다. 베키는 두 아들을 제시에게 맡기고 일어났다. “우리 허락도 없이?”

스테파니가 겁이 나서 움찔했다. 스테파니는 저렇게 화난 모습을 처음 본다. 그리고 베키 숙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스테파니가 시작했다. 베키와 눈을 마주치려하자 스테파니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어딜 가려고 했는지 말을 안 하는 걸로 봐선 넌 내가 뭐라고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스테파니 테너!”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베키 숙모.” 스테파니가 말했다. 스테파니는 니키를 잃어버릴 뻔 한 일을 생각하자 두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내가 어찌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지? 스테파니가 자신에게 물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지,” 베키 숙모가 화가 나서 말했다. “정말 걱정됐어.”

제시가 일어났다. “난 지금 널 믿을 수가 없어! 뭘 잘못 했는지 확실히 알면서도 변명을 하고 있어 스테파니!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혼잡한 시내 거리를 걸어갔단 말이야, 나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했어.”



안된 다고 할 까봐 허락을 안 받은 거야! 그리고-”

“또,” 숙모가 멈췄다. “난 지난주에 네가 쌍둥이들과 놀이터에 갔다고 했던 것도 학교를 데려간 걸로 의심돼!”

“저기,” 스테파니가 말했다. “저 사실 한 번도 애들을 놀이터에 데려간 적이 없어요!”

“너!” 베키 숙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강철 칼처럼 갈라졌다. “난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할 때 나오는 말로 알고 있는데.” 숙모는 손을 뻗어 제시한테 있던 알렉스를 데려왔다. “애들을 돌볼 만큼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이없구나. 스테파니 신용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겠구나.

숙모와 삼촌은 쌍둥이들을 데리고 위 층 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또 책임감도 키워야해 스테파니,” 제시가 덧붙였다. “쌍둥이 돌보는 일은 지금부터 그만 두도록 해.”

숙모와 삼촌이 가버리자, 스테파니는 순간동안 오래 괴로워하며 거실 한가운데 한참을 서있었다. 스테파니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 창피하게 느낀 적은 처음이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스테파니는 베키 숙모와 제시 삼촌에게 애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니키를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하고 혼잣말을 했다. 다시는 스테파니와 말도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적어도 정말 정직한 아이가 될 수 있을 진 모른다.

잠시, 스테파니는 그들을 따라 다락방으로 올라가 학교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잠시 후, 스테파니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 할 거란 걸 깨달았다. 이미 숙모와 삼촌은 실망 한 상태다. 스테파니는 그들이 만약 이 아슬아슬한 얘기를 다 안다면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재킷을 걸치고 방까지 터벅터벅 올라갔다. 털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다 내 탓이야, 스테파니.” 큰소리로 말했다. 그리곤 그 날 두 번째로 스테파니는 울기 시작했다.

스테파니는 코메트가 스테파니 방문을 코로 밀고 살금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코메트는 스테파니의 침대로 뛰어올라가서 혀로 스테파니의 젖은 뺨을 핥자 고마움의 표시로 코메트를 바라보았다. “고마

워, 코케트.” 스테파니가 작게 말했다. “이 집에 아직도 내 얼굴을 훑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기쁜걸.”

스테파니는 디제이가 방문을 두들겼을 때까지 계속 한 시간이나 누워 있었다.

“괜찮니, 스테파?” 언니가 물었다.

“응.” 스테파니가 언니 쪽으로 몸을 돌아누웠다. “베키 숙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거야?” “아니, 제시삼촌께 들었어.” 디제이가 말했다. “아직도 화가 나셨어. 그리고 네 행동을 듣고 나도 정말 놀랐어.”

“또 시작이네!” 스테파니가 끼어들었다. “이미 삼촌이랑 숙모한테 한 소리 들었던 말이야! 혼내시는 소릴 언니도 들었어야 했어, 둘 다 무섭게 소리를 질렀다구.”

“알아, 너랑 쌍둥이들이 납치라도 된 줄로 아셨데!”

“알아.” 스테파니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다시 돌아누워서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내 말도 믿어.” 스테파니는 주먹을 쥐고 베개를 쳤다.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나도 모르겠는데 스테파,” 아빠가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내가 자신에게 매일 묻는 거지.” 스테파니가 놀라서 일어났다. “언제 오셨어요?” 아빠에게 물었다.

“어, 방금.” 아빠가 대답했다. “내가 들어오자마자 조이가 무슨 말을 하던데.”

“조이가요? 오 참 잘했네. 이제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온 동네가 다 아는 거네. 오늘 밤 텔레비전에 나오겠구나. 「6학년 스테파니 테니 쌍둥이들을 허락 없이 학교에 데리고 가다.」 오늘 밤 11시에 방영.”

아빠가 와서 침대 끝에 걸터앉았다. “가족끼리 비밀은 없단다.” 아빠가 조용히 말했다.

“없다구요?” 스테파니가 되물었다. “말도 안 돼요. 아빠. 모두가 서로의 일을 다 알아서 싫다구요. 이건 정말---”

“스테파니,” 데니가 끼어들었다. “오늘 네가 한 일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사생활에 대해 불평하거구나. 그리고 어쨌든, 네 일은 내 일이기도 해. 난 아빠잖니.”

“오.”

아빠는 자기의 어두운 갈색 머리를 손으로 쓸었다. “난 네가 베이비씨

터를 한다기에 우리 딸이 다 컸다고 얼마나 허풍을 떨며 자랑을 했는데. 어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 스테파니?”

곧 스테파니의 뺨에서는 눈물이 또 흘러 내렸다. “추진회 일 때문 이예요. 아빠.” 스테파니가 말했다. “제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쌍둥이들은 제 도움이 정말로 필요했어요.”

“하지만 넌 이미 화요일 오후마다 베키 숙모를 위해 애들을 돌봐주기로 했었잖니?”

“네.” 스테파니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쌍둥이들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전 숙모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넌 숙모가 진이 빠질 정도로 걱정하게 했잖아. 삼촌도 걱정해서 녹음 일을 하다 중간에 그만두고 스케줄을 다시 잡게 만들었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오후 스튜디오 이용료는 어쨌든 내야 하는 거 아니?”

아빠가 일어났다. “넌 알렉스와 니키도 실망시킨 거야.” 아빠가 계속했다. “들을 허락 없이 학교에 데리고 가는게 아니 였어. 게다가 나도 실망했고 나머지 가족도 마찬가지야.”

대니는 방을 나섰다. “난 네가 이번 일에 대해 시간을 갖고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 스테파니. 이번 일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아빠가 문을 닫자마자, 디제이 스테파니는 다시 한 번 울기 시작했다. “난 잘 알아요, 아빠.” 큰소리로 말했다. “아빠보단 더 잘 안다 구요, 왜냐하면 오늘의 끔직한 얘기를 다 아는 건 나뿐이니까요. 내가 몇 명을 실망시켰는지는 내가 알아요. 왜냐고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일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실망을 할 거예요. 오늘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제시 삼촌에게 밴드를 학교에 초대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6학년 계획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갈 거예요!”

스테파니는 뺨을 베개를 한 번 더 쳤다. “난 정말 문제를 만들어버렸어.” 스테파니는 계속 말했다. “이번에 부딪친 문제는 정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엉망이 돼버렸어!”

## CHAPTER

### 9

다음 날, 스테파니는 일어나서 가장 밝고, 화사한 옷인 노란색과 분홍색 꽃무늬 티셔츠와 개나리색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아마 내가 화사해 보이면, 애들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 스테파니는 1층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와 부엌으로 갔다. “좋은 아침,” 스테파니가 말했다.

제시가 커피 잔 언저리 너머로 스테파니를 힐끗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나머지 가족들도 머뭇거리더니 아침밥을 계속 먹었다. 사실 알렉스는 스테파니가 오면 가장 좋아할 것 같았던 유일한 가족이었다. 스테파니가 알렉스의 어린이용 의자 옆을 지나가자 오동통한 손을 뻗더니 큰 바나나-라이스 씨리얼 덩어리를 스테파니의 노란 치마위에다 뭉게 버렸다.

“알렉스!” 스테파니는 열 받기 시작했다. 스테파니는 온 가족이 자기의 반응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진정했다.

“그냥 닦으면 되지 뭐!” 스테파니는 억지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바나나가 노란색이라서 내 개나리색 치마랑 아주 잘 어울리네. 버스 타러 갈 때쯤이면 다 마를 거야.” 스테파니는 싱크대로 가서 젖은 부엌 행주로 씨리얼을 닦아냈다. “애들도 이 냄새를 싫어하진 않을 거야, 유기농 바나나니까, 그리고.....”

스테파니는 아무도 자기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는 하던 말을 멈췄다. 한숨을 쉬면서 스테파니는 평소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과일 토스티오즈 씨리얼을 잔뜩 먹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손가락을 들자 코메트가 총총총 걸어오더니 얼굴을 스테파니 무릎에 묻었다. 코메트를 쓰다듬어주고 귀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메트의 행동을 알아차리고는 손을 치워버렸다. 분홍색의 긴 코메트의 혀가 스테파니의 스커트 자락을 소리 내며 핥고 있었다. 코메트는 알렉스가 묻힌 바나나-라이스 시리의 남은 부분을 닦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스테파니 치마는 한 시간이 지나 학교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짹 짹하게 축축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대신 친구들은 스테파니를 대단한 영웅 같은 인물

로 6학년의 대장처럼 대해 주었다.

“야, 스테파니!” 조쉬 힐맨이 스테파니가 학교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불렀다. 사물함 문을 닫고는 스테파니 쪽으로 짹짹 왔다. “6학년을 위해서 정말 고생했다면서?”

“어....”

“락밴드!” 조쉬가 열광적으로 말했다.

“어디서 그런 멋진 아이디어가 나온 거니?”

“어....”

“넌 잘 할 수 있을 거야.” 조쉬가 말했다. 미소를 지은 뒤 예쁜 파란 눈을 복도 모퉁이에서 깜박 거렸다. “이미 축구팀의 크리스 리플이랑 나머지 애들한테 부스 만들기 등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봤어. 지금으로 봐선 우리의 계획이 승리나 다름없어.”

조쉬는 강당을 내려갔다. “나중에 또 보자 나한테 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만해. 안녕.”

“어, 안녕.” 스테파니가 힘없이 대답했다.

조쉬의 뒷모습을 보면서 스테파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씩씩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어쩔 줄을 몰랐다. 대단해. 스테파니가 생각했다. 단지 몇 시간도 안돼서 락밴드 계획이 소문났기 때문이다. 지금 6학년 전체가 스테파니를 믿고 있다. 하지만 이건 스테파니가 제시 삼촌에게 카니발에서 공연 부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만 이었다.

“야-호! 스테파니!” 카라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 “락밴드 얘기를 애들한테 해주는데 너무 재밌어. 그리고 도우미 애들도 더 모집했어. 락밴드 얘기만 하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구!”

“음.”

첫 교시 종이 울렸다. “서둘러야겠다, 스테파! 나중에 봐! 빠바밤!”

“빠바밤,” 스테파니가 카라에게 중얼거렸다. 스테파니는 누가 자기의 어깨를 툭툭 치자 사회연구 교실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뭘까, 스테프?” 다씨가 말했다. “우리 셋은 지금 도서관으로 가서 식민시대 삶에 대한 프로젝트를 마치자, 출입증은 내가 챙겼어!”

“오, 좋아,” 스테파니가 말했다. 스테파니는 주의를 둘러보고는 도서관 쪽으로 친구들을 따라갔다.

스테파니는 적어도 도서관에 있는 게 교실 한 가득 있는 애들한테서 6

학년의 영웅이라는 걸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건, 2교시 전까지는 말이다. “그래 줘.” 다씨가 도서관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책상에 앉아 말했다.

“달라니?”

“예! 삼촌 밴드는 카니발에서 어떤 곡을 연주하실 거래니?”

“잠깐만!” 엘리가 우리 쪽으로 서둘러오더니 책상에 책을 내려놓았다. “나만 빼놓고 무슨 얘기가. 밴드 얘기 같이 듣자. 모든 애들이 밴드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스테파니가 힘없이 말했다.

“그래 삼촌이 뭐라시니?” 다씨가 물었다. “옛날 인기곡들을 부르신데? 아님 엘비스? 아님 새로운 거? 뭐?”

“으-저기,” 스테파니가 말을 더듬었다. “사실은, 제시 삼촌이랑 어젯밤 특별한 얘긴 안 했어. 저기, 내가 도서관에서 집에 갔을 때 집에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

“오, 저런,” 엘리가 말했다. “어떤 노래든 괜찮아. 내가 볼 때 삼촌은 어떤 곡이라도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얼굴도 잘생기셨고, 어떤 곡을 연주하든지 모두 난리가 날거야.”

“그래,” 다씨가 동의했다. “진짜 락스타랑 한집에서 산다는 건 정말로 정신없을 거야, 스테프?”

“음, 그래,” 스테파니가 시작했다. “항상 좋지 만은 않아. 바로 어제처럼, 제시삼촌이랑 내가--”

“스타 성질,” 다씨가 끼어들었다. “영화배우나 연기자들도 다 그래. 감정기복이 심하지, 그런 성격으론 삶이 평탄치 않아!”

“나도 들은 적 있어,” 엘리가 말했다. “창의적 성격이랑 관련이 있어. 그것 땀에 유명인들이 흥미롭고 멋지게 보이는 거지, 스테프?”

“그래, 성격이 죽 끓듯 한다는 건 맞아.” 스테파니가 말했다. 스테파니는 친구들의 호기심 찬 얼굴을 보고는 제시삼촌 밴드에 대한 얘기로 그들을 감히 실망시킬 수가 없었다. 그리고 스테파니는 생각했다. 결국엔 자기가 카니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삼촌과 화해하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학교를 마치고, 체육관에서 다른 애들과 일을 하고 있을 때 스테파니는 3일로 다가온 카니발에 초대할 밴드를 구하지 못했다고 죽어도 말할 수

가 없었다. 6학년의 거의 모두가 조별 수업시간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돕겠다고 했어. 그리고 조별수업과 점심시간 때 애들은 판을 두들겨 판지에 무늬를 만들고, 부스에 색칠하고, 간식을 비하고 상품을 정리해가면서 스케줄을 짰다. 일 할 때 애들은 농담하고 웃으며 큰 소리를 냈다. 모두가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스테파니를 제외한 모든 애들이 농담을 할 때 스테파니도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먼저 말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스테파니는 너무 우울해서 단 한 순간도 장난칠 기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집안 일 들은 더 심각했다. 화요일 스테파니가 학교에서 왔을 때 베키 숙모가 통화를 한창 하고 있었다. “그래, 맞아,” 숙모가 말했다.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 세 번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사람이 필요해.”

베키 숙모는 나를 대신할 베이비씨터를 구하고 있었다. 스테파니는 문가에서 꿈쩍도 할 수가 없었다. 스테파니의 입은 실망하여 다물어질 줄을 몰랐다.

“그래,” 베키 숙모가 대답했다. “쌍둥이야.” 숙모가 시선을 올렸을 때 스테파니와 눈이 마주쳤다. 스테파니는 눈을 깜빡였고 힘겹게 침을 삼켰다. “니키랑 알렉스의 베이비씨터 구하지는 거예요?” 스테파니는 베키의 통화가 끝나자 말을 걸었다.

베키 숙모는 놀란 듯 보였다. “그래, 당연하지,” 숙모가 말했다.

스테파니는 할 말을 잃었다. 제시 삼촌은 스테파니가 베이비씨터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말했지만 지금 까지도 정말 믿기지않았다.

“미안하다 스테파니, 그래도 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새 베이비씨터를 구하지 못 한다면 난 책임 있는 부모가 아니지.” 베키가 일어났다. “책임감 있는 부모란 말이 나온 김에, 윗 층에 가서 애들이 낮잠에서 깬는지 봐야겠구나.”

베키는 서둘러 올라갔다. 스테파니는 천천히 따라 갔다. 방으로 들어가자 미셸이 이미 방에 있었다. 스테파니의 침대 한가운데 앉아서 스테파니의 스위트 셔츠를 입고 책을 읽고 있었다.

스테파니는 화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해 있었다. “저리로 좀 가,” 스테파니가 고작 미셸에게 한 말이다. 그리고는 침대에 특이한 포즈로 엎드렸다. 미셸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스테파니 아파?”물었다.

“그래, 미셸, 난 아파. 인생이 골치야.”



“의사를 부를까?” 꼬마 여동생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스테파니가 얼굴을 베개에 대고 말했다. “그냥 아픈거의 한 종류야-그냥 그런 거라고.”

“오,” 미셸이 공감한다는 듯이 말했다. “안됐네. 뭐가 문제야?”

스테파니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일에 대해 생각을 하곤 한숨을 쉬었다. “아주 복잡해.” 스테파니가 말했다. “설명하려면 길어. 이번 일로 하루 종일 우울해. 내말 믿을 수 있지.”

“내가 기분 좋게 해줄게!” 미셸이 말했다. 미셸은 침대에서 뛰기 시작했다. “다다데다 드엄,” 폼을 잡고, 미셸은 재즈 버전의 지렁이 송을 큰소리로 불러대며 방 주위를 춤추며 다니기 시작했다.

“꿈틀거리는 백 마리의 지렁이들,

호, 호, 호!

차 차 차!

폼지락 거리는 백 마리의 지렁이들,

오르락 내리락!

야 야 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평소 같으면, 스테파니는 미셸의 “멋진” 버전의 지렁이 노래가 발작적으로 웃을 만큼 재미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밤 스테파니는 자신이 너무 안됐다고 느껴서 노래의 변화를 알아채질 못했다.

미셸이 마침내 다섯 차례에 걸친 공연을 끝내자 스테파니는 디제이에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조언을 좀 들어보기로 했다. 디제이는 여전히 불어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스테파니가 들어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안녕, 스테프,” 어깨 너머로 말했다.

“ comment allez-vous (잘 지내니)?”

“만약 ‘잘 지내니?’란 의미라면 대답은 ‘끔찍해’야, 디제이.”

디제이가 공부하던 곳을 표시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짚었다. 손으로 얼굴에서부터 머리까지 쓸어 올리고는 위로 올려 다 봤다. “베키 속모랑 제시 삼촌이 화난 일 때문에 아직도 걱정이구나?”

“그래 맞아,” 스테파니가 말했다. 디제이가 안됐다는 듯 바라보았다.



“글쎄,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디제이가 말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용서를 구했다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를 보여줘. 그게 다 일거야-그리고 얼마나 정직한 아인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 다시 너를 믿을 수 있게 해야 하거든.” 디제이는 다시 책을 보았다. “숙모네가 뭐라고 한 줄 아니 스테프. 시간이 약 이랬어. 숙모랑 삼촌이 조만간 용서해 주실 거야.”

스테파니는 언니의 숙인 고개를 바라보았다. 디제이에게 락 밴드에 대한 거짓말 얘기도 설명 했다. 스테파니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디제이는 매사에 정직해야한다고만 한다.

언니는 내게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말 할 거야. 스테파니는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것만은 정말 못하겠어.

스테파니는 언니 방에서 나오면서 최근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정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숙모에게 방과 후 쌍둥이들에게 일어났던 일도 거짓말을 했다. 스테파니는 니키의 실종사건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락 밴드를 초대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다시 한 숨을 쉬고는 계속 울려대던 전화를 받으러 갔다.

“안녕 스테프!” 다씨가 말했다. “내일 학교 끝나고 쇼핑물 갈래? 엄마가 태워다 주신데. 할인코너에서 낚시대회 상품을 더 사려고, 그리고 청바지도 왕창 세일을 한데.”

“그래.” 스테파니가 말했다.

“좋았어! 엘리한테도 전화해서 같이 갈 수 있나 물어볼게. 알았지?”

“그렇게 해.”

“그런데 너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아, 스테파니! 너 원래 쇼핑을 제일 좋아했잖아.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음, 저기,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리고 쇼핑 같이 가자. 내일 수업 끝나자마자 학교 공중전화 앞에서 만나.”

“좋아!” 다씨가 말했다. “그리고 쇼핑할 돈도 좀 가져오는 거 잊지마! 안녕!”

“그래.” 스테파니가 말했다. 전화를 끊고 방으로 가서 곧 바로 다시 침대로 기어 올라갔다.

그 날 밤 스테파니는 악몽을 꾸었다. 꿈에서 스테파니는 미셸의 꿈돌이

잠옷을 입고 전교생이 보고 있는 무대에 서 있었다. 모든 아이들이 스테파니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웃으며 놀려댔다. 도망가려고 코메트와 키미기블리와 함께 다른 가족에게로 바로 뛰어갔다. 꿈은 계속됐다. “너한테 실망이야, 스테파니.” 아빠가 말했다.

“moi, too (나도).” 디제이가 말했다.

“네 말은 믿을 수 없어.” 베키 숙모와 제시 삼촌이 함께 말했다. “암소가 수소에게 말하듯.” 조이가 말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스테파니!”

“나가버려,” 미셸이 말했다. “보디오!”

“뭐 좀 먹을래?” 키미가 말했다.

“난 배고파죽겠다!”

다음날 학교에서 6교시 내내 스테파니는 악몽이 계속 생각이나 공포에 떨었다. 방과 후 쇼핑몰에 가려고 다씨 엄마차 안에서 내내 스테파니는 낯 나간 사람 같았다. 엘리와 다씨가 곧 있을 카니발에 대해 재잘 거리는 동안 스테파니는 뒷자리 구석에서 박혀서 완전히 우울한 침묵에 빠져 있었다. 쇼핑몰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조용했고 2시간 후에 다씨의 엄마를 다시 만날 약속을 했다.

“식품코너에 가자!” 다씨가 제안했다.

“튀김말이 한 봉지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난 과일 슬러시,” 엘리가 말했다. “그리고 튀김말이 한 봉지, 넌 스테프?”

“나?” 스테파니가 정신 나간 듯 대답했다. “오, 난 별 생각 없는데.”

엘리와 다씨가 이상하단 듯 눈빛을 교환했다.

“그래,” 엘리가 말했다. “배고파지면 우리 튀김이라도 먹어,”

세 아이들은 쇼핑몰로 들어갔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식당코너로 올라갔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엘리는 갑자기 스테파니의 팔을 잡았다. “저것 봐!” 엘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소리로 말했다.

스테파니와 다씨가 큰 다라딘의 실물 크기의 사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포스터 아래 적힌 글을 읽으려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화배우 다라딘과 사진 찍고 싶지 않으세요?” 다씨가 큰소리로 읽었다. “8학년 후원. 수입전액은 존 무어 중학교 도서관 발전 기금으로 쓰여 집니다.”

“오” 앨리는 식당코너로 가면서 격렬한 말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기금 모금을 학교 애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 바로 여기 몰에서 부쓰를 만들어서 할 건가 봐. 단순히 다라딘과 사진을 찍고 돈을 벌려는 생각인 것 같아!”

“제니 모리스의 아빠가 연예계 아는 사람이 있나봐.” 다씨가 말했다. “그래서 다라딘이 개들을 위해 일 좀 해준다고 했나봐.”

“그러겠지.” 앨리가 말했다. 앨리는 튀김말이 코너에서 멈추고는 가장 큰 튀김 한 봉지를 샀다. “우리에 비하면 별거 아니네, 그치?” 앨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도 연예계에 아는 사람이 있잖아!”

다씨가 팔을 스테파니의 어깨에 걸쳤다. “스테파니 테너 양.” 다씨가 말했다. “우리의 락스타와 아는 사람이 있잖아. 명예와 행운....그리고 하루 쉼 날을 따낼 6학년의 보증수표!

스테파니는 이 순간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야.” 스테파니가 철제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난 락스타와 아는 사람이 없어! 더 이상 없어! 제시 삼촌과 베키 숙모와 크게 다뿔거든 내 부탁을 들어 주기는 커녕 지금 삼촌은 나와 말도 안 하셔.”

앨리와 다씨의 입이 놀라 벌어졌다. “너 그럼 삼촌이 카니발 공연을 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말이야?” 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장난 하지마!”

“농담이지?” 다씨가 물었다.

비참하게 스테파니는 고개를 저었다. 몇 분 동안 다씨와 알리는 충격으로 스테파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씨가 일어섰다.

“나 기금모금 위원회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야겠어.” 다씨가 말했다. “30분 안에 여기 모일 수 있는지 말이야. 우린 아직 긴급회의를 열 여유는 있어.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애들 중 한 명이라도 생각이 있을 거야.”

“같이 하자,” 앨리가 일어서서 전화박스로 다씨를 따라가며 말했다.

스테파니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둘은 6학년위원회의 모든 애들한테 전화를 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애들이 집에 있어서 쇼핑몰로 올 수가 있었다. 4시 30분까지 거의 위원회전체가 식당코너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스테파니,” 다씨가 시작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스테파니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씨 네가 해 줄래?” 스테파니가 부탁했다.

“안 돼.” 다씨가 강하게 말했다. “너가 해야지. 서둘러,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알았어.” 스테파니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나 삼촌한테 카니발에 오시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 그래서... 저기...결국 6학년 락 밴드 공연은 없어.”

“뭐?” 크리스 리플이 말했다. “말도 안 돼!”

“그럼 왜 우리한테 학교전체에 락 밴드가 올 거라는 포스터들을 붙이게 했니?” 카라가 물었다. “지금 우린 다 바보가 된 기분이야!”

“그렇네.” 리지에 티몬스가 말했다. “난 더 이상 이 위원회에 있고 싶지 않아.” 의자를 뒤로 밀고는 일어섰다. “그럼, 난 그만 둘래. 간다!”

“나도!” 몇몇 다른 애들도 탈퇴를 했다. “나도 여기서 빠질래.”

리지에가 걸어 나갔지만 스테파니는 다가가서 리지에의 소매를 잡았다. “잠깐, 리지에.” 스테파니가 말했다. “잠깐 애들아. 가지 말고 잠깐만 내 말을 들어봐.”

내키지 않는다는 듯 위원회 애들은 가다 돌아서서 얘기를 들으려 했다. “잘 봐” 스테파니가 말했다. “나도 내가 모든 일을 망쳐 놓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낭비했어.”

“당연하지!” 카라가 말했다. 스테파니의 불이 붙어 졌지만, 계속 말했다. “너희들 다 그만 두려고 하는 거 알아. 하지만 잠시만 진정하고 우리가 지금껏 해온 일을 생각해봐. 모든 계획과 소품, 그림. 다 버리고 싶지 않잖아 그렇지?”

크리스토퍼와 리지에가 서로 바라보았다. “글쎄.” 크리스가 말문을 열었다. “이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한 건 맞아.”

“그래,” 스테파니가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우리 카니발이 일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린 이길 수 없어!” 카라가 끼어들었다. “락밴드도 없이.”

스테파니가 이를 악물고 카라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 “우리가 카니발에서 이기지 못해도.” 스테파니는 계속 말을 했다. “우리는 여전히 적어도 도서관기금을 마련할 수는 있어. 그리고 이게 바로 처음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렇지 않니?”

리지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리지에가 테이블로 돌아오면서 말했다. “계속 이 일을 하고 카니발을 할 건지 투표를 할게. 네 말을 믿어 보지, 그렇다고 내가 아직 화가 다 풀렸다고는 추어도 생각 하지마.”

“공동의장으로써,” 다씨가 말했다. “잠깐 투표를 하자. 카니발을 추진했으면 하면 손을 들어서 표시 해줘.”

한 명씩 위원회 애들은 자기의 손을 들었다. “보자.” 다씨가 말했다. “하자고 하는 사람이 더 많네, 그러면 계획 데로 밴드 쇼를 하자. 그리고 최고가 되는 거야.”

그리고 최고가 돼야해, 스테파니가 혼자 따라 말했다. 이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빠질 수는 없어.



## CHAPTER

### 10

카니발이 열린 토요일은 햇살이 빛나고 화창했다. 아침 일찍 일곱 시 반쯤 6학년 도우미들은 모두 학교에 도착했고 일할 준비를 마쳐놓았다. 이들은 아침에 남는 시간에 부스를 세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놀랍게도, 체육관에서 축제가 진행되기 30분 전에 이미 학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은 카니발 행사장 입구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경매 시간 아기 돌보기!” 한 아빠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아주 괜찮네. 경매 동안 토니랑 파울로를 어떻게 하나 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는걸.” 엘 리가 눈코 틀 새 없이 입장권을 팔고 있는 스테파니에게 작게 말했다. “아마도 하루 쉬게 되는 날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야.”

“글쎄.” 스테파니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역사가 깊은 존 뒤어 학교에 도움이 되고는 있잖아!”

한시 반쯤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경매를 위해 모였고 카니발 놀이터는 꼬마 아이들로 북적 거렸다. 우선 6학년 아이들은 꼬마 손님들이 많이 와서 기뻐했다. 꼬마 애들은 장애물 코스와 케이크 워크, 테이블 만들기 같은 놀이를 재밌어 하는 것 같았다.

“우리 돈 엄청 벌겠다!” 다씨가 연못 쪽에 있던 스테파니를 불렀다. “오-오! 잠깐만, 수지야. 상품 상자 내려놔! 여기로 오렴!”

“으!” 남자 꼬맹이가 소리쳤다. “케이크를 못 받았어!”

꼬마 여자아이가 쿠키를 떨어트렸다. “엄마한테 갈래!” 꼬마가 소리 질렀다.

얼마 있지 않아, 괴음과 울음소리가 운동장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뛰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리고 울고, 도망가고 잡고 마치 운동장가득 정신없는 꼬마들로 가득 한 것 같았다. 몇몇 부스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무너지고 있는 것도 있었다. 레몬 양귀비씨 케이크가 가득했던 테이블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케이크를 준비한 카라 랜드포드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

운동장 전체에서 눈을 번뜩이며 6학년 아이들이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며

겨우 아이들을 정리했다. “여기로 와, 너!” 그6학년들이 외쳤다. “그만 차렷! 머리는 왜 잡아당기니 요 꼬마 괴물 딱지야!”

스테파니가 이 정신없는 광경을 보며 점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무슨 수를 써야겠어.” 스테파니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그러면 애네들 부모가 곧 여기로 와서 보고는 환부를 해달라고 할거야. 다씨! 엘리! 모여 봐! 얼른!”

친구들과 함께 스테파니는 꼬마들을 장애물 코스 쪽으로 겨우 모이게 했다. “좋아 애들아.” 스테파니가 나무 무대로 뛰어 오르며 말했다. “정신 없이 날 뛰는 건 그만하고, 지금부터 정말로 재밌는 걸 할 거야. 음.... 지금부터--”

“아양!” 한 꼬마 여자아이가 울었다. “아빠! 아빠!”

“아야!” 아장아장 걸던 작은 꼬마가 소리쳤다. “재가 물었어!”

애네들 앞에 있던 몇몇 애들이 일어나더니 원을 만들고는 달리기 시작했다. “스테파니!” 다씨가 못마땅해 하며 불렀다. “엉망이잖아. 어서 뭐라도 좀 해봐!”

“알았어!” 스테파니가 말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순간 스테파니에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그래! 지금부터 우리 멋진 지렁이 송을 부를 거야! 자 이 노래야:

“백 마리의 꿈틀거리는 지렁이들,  
호, 호, 호!  
백마리의 꿈지락 거리는 지렁이들,  
오르락 내리락!”

노래를 부르며, 스테파니는 서있던 상자에서 뛰어내리고는 미첼이 집에서 하던 꿈틀거리는 동작을 똑 같이 했다. 스테파니는 몇몇 아이들이 이 노래를 재빠르게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미 이 노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스테파니는 활짝 웃으며 노래를 하고는 다시 한 번 불렀다.

몇몇 아이들이 뛰어 놀다 스테파니 뒤로 오더니 줄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다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오, 요 꿈지락, 꿈틀 지렁이들,  
어디로 가나!”

즐거워하며 만든 길고 꿈틀거리고 꿈지락 거리는 줄이 운동장 주위를 안팎으로 둘러쌌다. 1절이 끝날 때마다 스테파니는 “한 번 더!” 라고 외쳤다. 그리고 아이들은 큰소리로 다시 한 번 노래를 불렀다.

놀라워. 스테파니는 노래하고 울동을 하며 생각했다. 이거 정말 괜찮은 노랜 걸. 왜 내가 몰랐을까.

“호, 호, 호!”

“안녕, 스테파니,”

스테파니가 고개를 돌리자, 제시, 베키, 알렉스, 니키, 미셸, 디제이가 연못 놀이 스크린이 있는 쪽에서 자기를 보며 활짝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테파니의 온가족이 카니발은 보러 온 것이다!

“재들 내 노래를 부르네!” 미셸이 기뻐서 소리쳤다. 미셸이 스크린에서 달려 나와 총총 가더니 줄 끝으로 가서 함께 했다.

“호, 호, 호!” 후렴부분 사이에 계속 노래를 하면서 제시가 서둘러 기타 줄을 맞추는 것을 스테파니가 보았다. “리허설 준비 중이야,” 제시가 말했다. 그리곤 시계를 힐끗 봤다. “그런데 내가 좀 일찍 왔네.... 우리 힘을 합쳐 볼까?”

“좋아요!” 스테파니가 웃었다. “노래도 아시잖아요.”

제시가 스테파니를 보고 다시 웃고는 나무 무대로 뛰어 올랐다. 텅! 제시가 기타를 힘껏 튕긴 후 외쳤다. “자, 꼬마 신사 숙녀 여러분! 인간지렁이와 흔들어봅시다. 자 저기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위로 아래로! 좋았어!”

모두가 즐거워했고 기타연주에 맞춰 박수 치며 한 번 더 부르기 시작했다. 스테파니는 울동 내내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스테파니가 들었던 노래 중에 제일 멋진 노래였다.

“애, 스테프.” 엘리가 스테파니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이거 정말 락스타 공연을 하는 것 같아!”

“그래 맞아!” 스테파니가 웃었다. “인간지렁이!”

잠시 후, 경매와 카니발이 끝나고 모든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쯤 스테파니, 다씨 그리고 엘리가 학교 앞 계단에 앉아서 여러



개의 티켓상자에 모아진 돈을 세기 시작했다.

“95달러야.” 스테파니가 말했다.

“난 105달러.” 다씨가 말했다.

“그리고 난 100달러.” 앨리가 말했다. “합계는 모두 300달러야!”

“와우!” 스테파니가 말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모았네- 특히 문제가 많았는데도 말이야.”

“정말 끝내주는데.” 다씨가 말했다. “아깝다. 우리 8학년을 이기지 못할 거야. 다라딘과 사진 찍기-정말 멋진 생각 아니니? 누구 나랑 쇼핑몰로 지금 당장 가서 아직도 사진 부스가 있는지 볼지 않을래? 다라와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앨리와 스테파니가 흘려보자 다씨가 움찔 했다. “농담이야!”

“그래야지.” 스테파니가 히죽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해-다라딘과 사진 찍기는 괜찮은 아이디어야. 스타와 기금마련을 했다면 적어도 오늘 8학년은 수천 달러를 모았을 거야!”



## CHAPTER

### 11

그날 저녁 늦게, 테너 가족 모두 조이가 만든 저녁, 스파게티와 마늘빵을 먹으려고 부엌 식탁에 모였다. 스테파니는 피곤해서 파김치가 되긴 했지만 너무나 행복했다. 스테파니는 카니발이 성공적이어서 잠시 동안 기뻐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사이가 안 좋아져서 걱정했던 모든 가족들과 다시 친해진 것 이었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단다. 스테파니.” 베키 숙모가 말했다. “운동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노래에 맞춰 춤추며 재밌어하는 모든 꼬마들을 지휘하고 있더구나.”

“저기!” 미셸이 끼어들었다. “지렁이 노래가 얼마나 괜찮은 노랜데요!”

“미안하다. 미셸.” 베키 숙모가 웃으며 말했다. “내말은 말이지: 그 장면을 본 후에야 스테파니가 좋은 베이비씨터가 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느꼈어. 다시 고용할까봐.”

스테파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 밖으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급히 올라가 방으로 가서 얼굴을 베개에 파묻었다. 바로 뒤로 베키 숙모가 재빠르게 따라왔다. “스테파니? 왜 그래? 내가 뭘 잘못 말했니?”

“저 보고 좋은 베이비씨터라고 하셨잖아요!” 스테파니가 흐느꼈다.

“미안하구나.” 베키 숙모가 말했다. “난 칭찬한 거였어. 능력 없는 베이비씨터라고 하는 게 좋겠니?”

“그래요!” 스테파니가 엉엉 울며 말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스테파니가 앉아서 눈물범벅된 얼굴로 베키 숙모를 보았다. “처음엔 사실을 말하기가 겁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엔 쌍둥이들을 학교로 데리고 갔는데 니키가 사라진 거예요. 한 30분 동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숙모, 아주 잃어버릴 뻔 했다고요!”

베키 숙모는 놀랐다. “오, 세상에.” 숙모가 말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애들을 못 찾았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그런 일은 얘기를 해야지.”

“저도 알아요.” 스테파니가 말했다. “하지만 겁이 나서 죽을 뻔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못 한 거고, 숙모랑 삼촌도 그때 이미 화가 나 계셨거든요. 영원히 절 미워하실 줄 알았어요!”

스테파니는 또 한 번 울기 시작했다. 스테파니가 고개를 숙이려하자, 베키가 스테파니를 잡았다. “괜찮아, 스테파니.” 베키 숙모가 두 팔로 안아 주시며 말했다. “제시 삼촌과 난 널 미워하지 않아.” 숙모가 휴지를 한 장 뽑아서 스테파니의 얼굴을 닦아 주었다. “우린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비록 문제가 있긴 했지만, 난 니키와의 일이 다 잘 되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이번 일로 무슨 교훈을 얻었는지 생각해보렴. 하나는 니키가 사라져 봤기 때문에 쌍둥이들을 돌볼 때는 잠시도 눈을 때선 안 된다는 걸 알았잖니.”

“맞아요!” 스테파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쌍둥이들에게서 잠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개네들은 금방 딴 짓을 하거든요.”

“오, 그러니!” 베키 숙모가 웃었다.

스테파니도 따라 웃었다. 잠시 후 스테파니는 다시 심각해졌다. “이번 일로 또 다른 것들도 배웠어요.” 스테파니가 말했다.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힘들어진다는 것과 사실의 반만 얘기해도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걸요. 비록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눈치 보며 속이려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스테프.” 베키 숙모가 말했다. 숙모는 스테파니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자 어쨌든, 지금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쌍둥이들을 돌봐야하는지 알잖니, 나를 위해 다시 베이비시터 일을 해주겠니?”

“제가 다시 쌍둥이를요?”

“물론이야.” 베키 숙모가 대답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시작하렴.”

“좋아요.” 스테파니가 이번엔 숙모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약속해요. 다시는 시망 시키지 않을 게요.”

“스테파니!” 디제의 목소리는 집 전체에서 울렸다. “쇼핑몰에 갈 거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스티브랑 지금 나가거든.”

“다씨랑 엘리랑 쇼핑몰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스테파니가 베키 숙모에게 말했다.

“어느 학년이 이번 대회에서 이겼는지 알아보려 구요.”

“이따 보자, 스테프.” 베키가 말했다. “잘 됐으면 좋겠구나.”

십오 분쯤 지나서 스테파니와 제일 친한 친구 두 명이 식당코너에서 자기네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아는 애들은 다 불렀어.” 다씨가 쿠키아이스크림을 스푼으로 날름 활아먹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사진 찍기 아이디어로 8학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보지마,” 앨리가 자기의 초콜렛 밀크 셰이크 뒤에서 속삭였다. “그런데 제니 모리스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스테파니가 고개를 돌리자 제니가 식당코너로 걸어오고 있었다. “안녕, 6학년들.” 제니언니가 불렀다.

“너희들 우리의 멋진 사진 찍기 프로젝트로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알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좀 궁금하긴 해요.” 스테파니가 인정했다.

“우린 325달러나 모았어!” 제니언니가 말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우리가 1등이겠지.”

“325달러라구요?” 다씨가 다시 되물었다. “우리랑 25달러 차이 밖에 안 나네!”

스테파니가 제니를 쳐다보았다. “그게 다예요? 다라딘이랑 같이했는데? 실제로 사진도 찍었잖아요?”

제니가 이마에 있던 머리카락을 입으로 후 불며 말했다.

“아, 그거.” 제니가 말했다. “그건 그냥 관심을 끌려고 한 작은 광고였어. 진짜 다라딘은 없었어. 그냥 실물 크기의 사진을 갖다 놓았을 뿐이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 내고 기념사진을 찍던데.”

스테파니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농담이죠!” 스테파니가 큰소리로 말했다. “그럼 사람들을 오게 하고는 다라딘의 사진이랑 촬영만 한 거였어요? 어쩜 그렇게 속일 수가 있죠?”

“그래도, 반응은 좋았어.” 제니가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이겼잖니.”

“그래도, 속인 거잖아요.” 스테파니가 말했다. “다라딘이 오지 않아서 몇몇 사람들은 기분이 정말 나빴을 거예요.”

제니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오, 그래도 감쪽같이 속은 사람들도 있었다구.” 제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리 문제 될 건 없지 뭐.” 제

니가 손목에 낀 플라스틱 시계를 보았다. “빨리 가야겠다, 애들아. 너희들 학교 하루 못 쉬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해.”

엘리, 다씨, 그리고 스테파니는 제니가 가는 것을 쳐다보았다. “믿겨지니?” 다씨가 물었다. “어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니?”

“그러게.” 스테파니가 말했다. “제니언니 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엘리가 소리쳤다. “깜박할 뻔 했네, 가장 중요한걸 알아냈어. 엄마가 카니발 끝나고 슈퍼에 있는 마스씨에게 급히 가셨는데. 선생님들께서 애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으셔서 2등과 3등에게도 상을 주신데.”

“와우!” 다씨가 말했다. “2등 상품이 뭔데?”

“피자 파티야.” 엘리가 말했다.

“와 좋아.” 스테파니가 말했다. 스테파니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꺼냈다.

“뭐 하려고?” 다씨가 물었다.

“적을게 좀 있어.” 스테파니가 말했다. “지금부터 내년 프로젝트를 준비할래. 그럼 우린 아주 많은 시간동안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야.”

다씨와 엘리 둘 다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스테파니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신나는 아이디어들이 많아.” 스테파니가 연필을 집어들며 말했다. “자 한 번 해보자.”

## 참고문헌

### 1. 국내서

김재현. 「번역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1995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서울: 넥서스, 2001

### 2. 번역서

Koller Werner 저. 박용삼 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Lederer, Marianne 저. 전성기 역 「번역의 오늘: 해석이론」.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